



Heaven and Hell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2011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하늘나라와 지옥

지 은 이 | James W. Knox

옮 긴 이 | 이우진

펴 낸 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1. 5. 14.

재판발행 | 2019. 2. 23.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ib.com

표지그림 | 이장용 jy13b@naver.com

표지디자인 |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

내지편집 | 장한디엔피

ISBN | 978-89-89741-29-9

정가 9,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목 차

진리침례교회의 지체들에게	005
역자 서문	006
제1장 몸에 관해서	009
제2장 영에 관해서	024
제3장 혼에 관해서	040
제4장 죽음 이후의 삶	056
제5장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	070
제6장 영원한 혼과 영원한 몸	085
제7장 지옥	101
제8장 하늘나라	116
제9장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132
제10장 새 예루살렘	152
제11장 하나님의 평안	172
제12장 재창조와 하늘나라의 위치	185
부록1 - 요약 및 정리	213
부록2 - 하나님의 구원 계획	224

진리침례교회의 지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문안을 드립니다. 살아계시며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협력하여 함께 사역하는 것은 저에게 매우 큰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의 일부로서, 또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들을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받을 공동 상속자로서,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선포하는 동역자로서,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큰 복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네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딤후2:7)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제임스 W. 나스 형제로부터

역자 서문

성경에 의하면 실제적인 장소로서의 하늘나라와 지옥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든 지옥이든 둘 중 한 곳에 가게 됩니다. 하늘나라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하고 뜬 구름을 잡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죽은 후에는, 채 1초가 지나기도 전에, 하늘나라와 지옥의 문제가 말로 가장 실제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Heaven”을 “하늘나라”로 번역했습니다. 보통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성경적 의미에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상에 세우실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인 “천년왕국(Millennium Kingdom)”을 의미합니다(계20:1-6). 이에 반해 “하나님의 왕국(Kingdom of God, 혹은 ‘하나님의 나라’)”은 구원받으면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을 의미합니다(롬14:17).

이 책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에 위치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실제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고후12:2-4).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를 관념적인 장소가 아닌 실제적인 공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늘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이 책은 성경을 통해 그러한 장소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지옥도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땅 밑에 있는 실제적인 장소이며 고통과 형벌의 장소입니다(마12:40, 욥2:2,6). 이 책은 지옥의 존재도 성경의 증거를 통해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만 지옥의 크기는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사5:14).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마25:41). 그래서 처음의 지옥은 그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옥의 크기도 커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딤후2:4).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계21:16). 하늘나라에는 당신을 위한 거처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딜랜드 시에서 THE BIBLE Baptist Church와 부속 신학원에서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James W. Knox 형제가 설교한 “*Heaven and Hell*”의 내용을 요약하고 옮긴 것입니다. 책이 아닌 설교라는 특성 때문에 듣기와 옮기기에 어려움이 있어 내용 전체

를 번역하지 못하고 요약한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비록 요약이지만, 원래 강의를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모두 역자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이 책은 진리침례교회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번역한 것입니다. 2010년 겨울부터 2011년 봄까지 이 책을 교재로 하여 같은 제목인 “하늘나라와 지옥”이라는 주제로 주일 오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는 www.ilovekjb.com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끝에는 부록으로 역자의 요약 및 정리와 Ford Porter 박사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이 책의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계시된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자와 역자와 독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1년 3월
역자 이우진

제1장 몸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과 욥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성경이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한 개념도 주일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영화에서 본 게 전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인생에서의 삶 이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은 하늘나라보다는 지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봤자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요3:12)

우리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 성경은 우리의 유한한 몸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분명합니다. 욥기 14:10을 보세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이것은 위대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매우 자세한 교리를 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이 구절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둘째로 살펴볼 것은 죽음 이후에도 어딘가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옳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는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잘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는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이것은 사람의 몸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이것은 사람의 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이것은 사람의 혼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몸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사람의 숨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면 당신은 어디에 있게 됩니까? 당신은 당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존재를 감싸고 있을 뿐이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은 당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집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일시적인 거주 공간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의 삶과 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당신의 몸 안에 있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 있는 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라져버릴 우리의 육신에 모든 관심을 쏟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나서 우리의 몸이 소멸되고 나면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될까요?

당신은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디에 있게 될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거리에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당신이 어떤 차를 몰고 다녔는지가 중요한 문제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당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에서 영원

을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에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100년이 지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때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의 숨이 멈추고 당신의 몸이 소멸되면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독자 중에는 매우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연재해나 어떠한 위협도 당하지 않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은 편하고 안락한, 이 세상에서는 “웰빙”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아무리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좋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병원과 묘지와 장례식이 전부라면, 관속에 누워지고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살인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강간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를 일삼는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쉴 틈 없이 살아왔기에 이제 은퇴해서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 죽고 만다면 얼

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것이 인간 존재의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인간의 존재가 끝난다면 인생보다 더 슬픈 것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물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19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만일 하늘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러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며 살아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님과 내세에서의 영광을 위해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절제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가 끝이 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기며 사는 게 나을 겁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만일 당신이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시적인 것들을 참아낸다면 그것은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영원이 없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영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부활이 있고 하늘나라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만일 제가 그러한 것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책이나 팔고 설교 테이프나 팔아먹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들일 뿐일 것입니다.

만일 영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일도 모두 헛된 일일 것입니다. 영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헌신된 인생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만큼이나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중 대부분은 의미 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19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삶은 오직 다음 세상과 영원이 존재할 때에만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 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저는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지금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왜 죄 없는 어린 아기가 죽는 걸까요?” 만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영원이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기가 죽는 것이 반드시 안 좋은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질병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육신 안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린 아기의 죽음이 슬프습니다. 어린 아기의 죽음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죽음

자체는 우리에게 큰 슬픔을 줍니다. 그러나 그 아기들이 하나님께 갔다는 사실이 슬픈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 없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을 막을 수 없었나요?” 그러나 전쟁이 사라진다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폭탄에 맞아 죽지 않을 뿐입니다. 전쟁이 없어도 여전히 죽을 것이고 몸은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천 년이 지나고, 만 년이 지나고, 수백 만년이 지나면 어떻게 죽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영원이 없고 지금의 삶이 전부라면 전쟁은 매우 끔찍한 일이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고 영원이 있다면 전쟁은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의 또 다른 입구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군인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구원받은 민간인도 하늘나라에 갑니다. 영원이 있다면 죽음이 아니라 구원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영원이 있다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영원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가 잡혀서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당한다 할지라도 피해자들에게는 억울한 일입니다. 사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벌을 다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입니다. 만일 영원이 없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기하는 모든 불평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질문에 해답을 줍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합니까?”, “왜 구원받은 자매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까?”, “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장애아가 태어나는 겁니까?” 만일 영원이 없다면 저는 이러한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죽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질병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죽음과도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면, 저는 어떠한 이 세상의 문제나 부조리나 고통에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원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23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보입니까? 사람들은 항상 몸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이나 외모 등 겉데기인 육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을 가장 뒤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몸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을 리스트의 가장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순서는 영이 먼저고 그 다음이 혼이고 그 뒤에 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이 거룩히 구별되고 혼이 거룩히 구별되고 몸이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이 아닌 한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당신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 혼, 몸은 당신의 세 요소입니다. 이 세 요소가 하나의 인간을 구성합니다.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 호흡기관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호흡기관의 구조와

역할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숨쉬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지 못하지만 신뢰하고 그 위에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어떤 음식물은 곁에 성인에게 하루 필요한 철분 중 12%를 함유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음식물은 사람에게 좋다고 합니다. 그게 좋은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니 그 음식물의 곁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는 방식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증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접하는 거의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입증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요일5:9a)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창세기 1:26-27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부르십니다. 창세기에서는 몇 분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가요? 한 분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삼중적인 존재인 인간도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복수 대명사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 대명사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중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삼중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일5:7)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말씀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삼중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당신은 삼중적인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중적인 부분 중 영원한 부분이 당신의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인해 당신은 살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혼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는 의사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인간의 창조에 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보다 자세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창2:7)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는 점이 놀랍지 않으세요? 땅에는 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는 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은으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강철이나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지만 “600만 불의 사나이”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2천 원짜리 사나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하고,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흔한 재료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재료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전 우주에서 가장 높고 귀한 창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창1:28)

하나님께서는 가장 흔하고 낮은 물질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너는 흙(dust)이니 흙(dust)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3:19)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지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창2:7)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교리를 잘 보세요. 이 구절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으로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 안에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영이 결합함으로써 몸 안에는 살아 있는 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마16:26)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히10:39) 당신의 혼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몸은 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창3:19).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전12:7). 사람이 죽으면, 숨이 멈추고 영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 몸이 소멸되고 나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몸 안에 있던 그 사람의 존재는 어디로 가나요?

저는 어떤 젊은 그리스도인에게 한 묘비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묘비는 큰 공동묘지 안에 있던 것인데 꽤 큰 무덤의 묘비였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름도 없었고 날짜도 없었습니다.¹ 그 묘비에 기록된 유일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무덤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이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TV나 잡지를 통

1 미국의 묘비에는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역주

해서 세상이 하는 말은 모두 잊어버리세요. 세상은 당신의 몸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항상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의 관심을 몸과 육신에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21을 보세요. 이 구절은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만일 지금의 삶이 전부 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보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나은 육체를 얻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황금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린양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전기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동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란다고 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소망한다고 해서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은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빌1:22)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체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after the flesh)”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육신 안에(in the flesh)”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용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눈을 이용해

서 다른 사람과 소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육신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제 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제 혼이 떠나게 되면 제 몸은 이곳에 있어도 저는 이곳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저, 진짜 저는 저의 몸이 아니라 몸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1-6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별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아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우리의 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몸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절에서는 “땅에 있는 집”이라고 부릅니다. 2절과 4절에서는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당신 자신이 일시적으로 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건, 얼마나 좋은 교회에 다니건 상관없이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몸은 당신에게 고난을 줄 것입니다. 그 고난은 육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상처일 수도 있고 영적 투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이 살고 있는 당신의 집인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문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어느 날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자 중에는 창문이 깨진 집에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지붕이 새는 집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둥이 주저앉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십대라면 제가 말하는 것이 와 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청소년도 나이가 들면 이러한 얘기가 가슴에 와 닿게 됩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70세나 80세가 되었는데 영원에 대해 아무런 소망도 없다면 날마다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가 지날수록 절망만 커질 겁니다.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무엇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몸 안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은 몸에서 나와야 합니다. 육신의 장막 집을 버리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영광스런 몸을 얻게 될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3을 보세요.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이 구절도 당신은 몸 안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20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당신은 당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당신의 집으로 이사를 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당신의 일시적인 집인 몸을 떠나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번의 인생을 산다고 말하는 종교와 윤회한다고 말하는 종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환생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 소망은 다시 인생을 살면서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또 다른 기회를 얻는 게 아닙니다. 제 소망은 이 육신의 장막을 영원히 벗어나 주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주제의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

- (1)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 있습니다.
- (2) 몸은 우리 자신(혼)이 거주하는 일시적인 집일 뿐입니다.
- (3) 몸이 소멸되고 영이 떠나면 우리 자신(혼)은 어딘가에서 영원을 보내야 합니다.

제2장 영에 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성경이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적인 기초를 놓고자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기초를 이해해야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어딘가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지금의 삶을 넘어서진 진정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만일 우리의 존재가 이생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인간은 매우 비참한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며 따라서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삼위일체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당신의 몸일 뿐이지 당신 자체는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진짜 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거처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열정을 들여 몸을 가꾸는 데에 투자합니다. 그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혼과 몸이 같은 것이 아님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영과 몸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과 영도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둘도 서로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놀랍게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

중적인 존재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영과 혼과 몸은 모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혼과 몸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그 집의 여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가 숨이 끊어졌으므로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매”(왕상17:17-18) 독자 중에 목회 사역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1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난 받는 것은 설교자의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본문에 나온 여자는 아들이 죽게 되자 함께 있던 설교자를 원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여인의 불평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며,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의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고”(19-20절)

청중에게 원망을 들은 설교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독자 중에 목회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잘 보십시오. 청중이 당신을 원망하면 청중과 다투지 마세요. 청중이 호소하는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서 그 원망을 하나님께 풀어놓으세요. 많은 목사들이 청중의 원망을 듣고 청중과 싸우다가 목회를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십시오.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며,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으므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방에서 집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넘겨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 있느니라, 하니라.”(21-23절)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사람이 삼위일체로서의 존재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숨이 거두어졌고 혼이 벌써 몸에서 떠났으며 몸은 침대 위에 누어져 있을 뿐입니다.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엘리야의 말을 보면 아이의 혼과 몸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아이가 “살아났으므로(revived)”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흥(revival)”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부흥이라는 말을 잘못된 의미와 용도로 사용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흥(revival)”이란 “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흥회”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혼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성경이 사용하는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흥(revival)”이란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죽어 있는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5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벧엘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랏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창35:16-19)

이 본문을 보면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몸이 나옵니다. 이 몸은 무덤에 묻힙니다. 그리고 몸을 떠난 혼이 나옵니다. 혼이 몸을 떠나는 모습을 잘 보

십시오. “그녀의 혼이 떠나려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성경은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혼이 당신의 몸을 떠나면 당신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혼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혼이 몸을 떠나면 몸은 죽게 되지만 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의 몸 안에 살아 있는 혼이 없다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는 살아 있는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마10:28)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나서 처음으로 지옥에 대한 구절이 등장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의 몸과 혼은 서로 다릅니다. 또 누군가 당신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혼에는 조그만 상처 하나 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믿는 사람들에게, 혼에는 손 하나 댈 수 없으면서 고작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과 혼을 모두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과 혼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영과 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과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영이 무엇이고 영의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몸과 영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

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눅23:46) 이제 52-53절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여 그 몸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결코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곧 돌 속에 판 돌무덤에 그 몸을 두니라.”

사도행전 2:25-27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므
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
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
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본문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예
언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 이후를 묘사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날이 끝나기 전에 주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무덤에 묻히셨습니
다. 그리고 주님의 혼은 지옥을 가로질러 옆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만나
기 위해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분은 누구였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
습니다. 주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몸은 무덤에 묻혔고 혼
은 땅의 낮은 부분으로 가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삼중적인 존재였고 당신도 마찬가지로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동물
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당신은 살아 있는 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양이나
낙타나 그 밖의 다른 짐승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는 몸에 속하지 않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안에도 몸에 속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자신의 육신을 넘어선 영적인 무

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거짓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거짓 종교들은 그 자체로 허구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보다 더 제정신이 아닌 것은 바로 무신론입니다. 진화론과 공산주의만큼 제정신이 아닌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몸 이외에 그것을 넘어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그의 존재는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도착(倒錯)이고 미친 생각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서 물질적인 육신을 넘어선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행7:58-59)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스테반입니다. 그의 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테반의 영을 받아주셨지 그의 몸을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과 몸은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빛을 가지고 있는 살아 있는 혼입니다. 저는 자신의 운명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해 걱정하는 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새치기를 하고 사과를 하는 고양이를 본 적도 없습니다. 짐승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 있는 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영원과 관련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 수 있는 무엇인가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바르게 행하

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혼동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에도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두셨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과 욥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영과 몸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11입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서에서 짐승의 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전 3:21) 사람은 동물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한 개가 으르렁거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를 모를 수 있지만 다른 개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같은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도 미소로 응답합니다. 말이 없어도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읽을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이나 손짓을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주 쉬운 구절을 보여줘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과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쉽게 계시를 해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동일한 사람에게 알기 쉽게 복음을 증거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신의 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 왔더니 그렇게도 이해가 가지 않던 복음이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과 욥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욥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창 2:7) 땅의 흙은 몸이고 생명의 숨은 영입니다. 이 구절을 욥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욥33:4)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더 이상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낳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첫 사람 아담과 그의 부인인 이브만을 만드셨을 뿐이고 그의 후손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과 동일하게 자신을 직접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욥기 33:4에서 말하는 것은 아담이 아닌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마

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자신도 전능자의 호흡으로 인해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의 시인을 인용합니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행17:24-27)

구원받은 사람이건 아니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동양인이건 간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숨을 받았습니다. 모든 살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만일 당신이 살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당신이 숨을 쉬다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는 물건을 찾을 때 더듬어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은 진리에 관한 한 눈먼 자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찾아 나선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의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28절)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여기서 그 문제는 잠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미신적인 아테네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 주리라.”(22-23절)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경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미신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고 생명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마귀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충분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호흡으로 인해 인간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몸과 살아 있는 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의 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 중 그 어느 것도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육체를 수련하거나 고행을 강조하는 등 몸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영은 몸과 다릅니다. 그러나 영은 단순한 호흡만은 아닙니다. 영에 관

한 것을 호흡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영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신 인간의 영이신 간에 호흡이 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요기 34장을 보세요.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 위에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흠으로 돌아가리라.”(요34:14-15)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눠서는 안 되겠지만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몸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영은 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영과 그의 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분을 두신 겁니다.

인간의 호흡과 영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2장을 보세요.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사42:5) 당신은 호흡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깊은 관련은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고 숨을 쉬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지 “호흡과 혼과 몸”이 아닙니다. 만일 호흡이 인간이라면 다른 사람이 내쉬는 숨을 들이쉬면 그 사람이 안에 들어온 것이 됩니다. 즉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서양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가면 호흡을 자제하고 코를 막습니다. 호흡하는 중에 죽은 사람의 영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²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도 주셨습니다. 영은 당신의 일부이지만 호흡은 당신의 일부가 아닙니다. 영과 호흡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2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금하는 등의 것이 그와 같은 생각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역자

스가라서 12장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
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
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슥12:1) 서양 사람들은 “유령(ghost)”을 “몸을
떠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몸의 형상을 하고는 있지만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인
혼의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몸 안에 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몸 안에 있는 영이
몸의 형태로 거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영에 대한 모
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동차 타이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겉
면이 노면과 닿는 고무로 되어 있고 내부에 다시 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튜브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이 내부 튜브 안에 있는 공기는 튜브
의 모양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타이어도 일종의 삼중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면과 닿는 타이어의 외부는 우리의 몸과 같습
니다. 혼은 내부 튜브와 같습니다. 혼도 몸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팔이 잘
렸는데도 불구하고 손끝이 간지럽다고 하는 사람을 본적이 있습니다. 몸
의 팔은 잘렸지만 몸 안에 있는 혼의 팔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
도 같은 형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성경은 영의 형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 몸 안에 있는 것이라면 분명 영도 혼
과 마찬가지로 몸의 형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영은 몸이 아니고 혼도 몸이 아닙니다. 영과 호흡도 서로 다른 것입니
다. 혼과 영도 다릅니다. 제가 지금 죽는다면 저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저
는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있게 될까요? 저는 일시적인 거
주 장소인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것은 모두 진리와 오류를 절반

씩 섞은 것입니다. 100% 오류로 이루어진 것은 오히려 믿기 어렵습니다. 마귀는 진리와 오류를 섞은 생각을 사람들에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생각을 그들의 구미에 맞게 또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오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이야기는 대부분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든 거인과 영웅과 신들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인과 영웅과 신들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종교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놀랄 것이 없습니다.

공룡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은 700~8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파충류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살았을 겁니다. 파충류들은 생존하는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몸통이 십여 미터가 넘는 악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악어도 수명이 수 백 년이 된다면 크기도 수십 미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57장과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12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인데 붙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공부를 통해서 마음속에 많은 질문이 떠오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성경이 요한복음 3:16 이상의 것을 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야 57:16을 보세요. “내가 영원히 다투

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영과 및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쇠할 것이기 때문이라.” 영과 혼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혼과 몸도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영과 몸도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독특한 책입니다. 전도서의 기록자인 솔로몬은 300명의 아내와 700명의 후궁을 두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더 불행해졌습니다.

전도서 3:18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말을 해 아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 아래서 살고 있는 솔로몬의 관점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19절)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짐승도 굴욕을 당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을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1장, 히브리서 2장, 창세기 9장 등을 보면 인간은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나 뛰어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살아 있는 혼이 없고 육체만 있다면 짐

승과 비슷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인간에게는 영원히 존재하는 살아 있는 혼이 있기에 짐승과는 다릅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흠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흠으로 돌아가거니와”(20절) 이것도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죽으면 저의 몸은 짐승의 육체와 같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즉 저의 육체나 짐승의 육체나 모두 흠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누가 그를 데려다가 그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 주겠느냐?”(21-22절) 솔로몬이 바로 우리가 앞의 과에서 살펴본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온 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혼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보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2:42). 솔로몬이 온 세상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혼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사람의 몸과 영에 대한 언급만 있습니다. 짐승도 몸과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과 짐승이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몸이 있고 짐승도 몸이 있습니다. 사람도 영이 있고 짐승도 영이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끝이라면 향락과 쾌락과 돈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영존하는 혼이 없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혼이 있습니다. 만일 당

신이 온 세상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건강하게 살아도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수 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7백 년을 살아도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년을 살아도 혼이 구원받는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이 무덤에 묻히고 나면 당신의 혼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혼은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으로 눈을 감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수도 있고 지옥에서 눈을 뜰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지옥에서 눈을 떴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입니까?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리즈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요약

- (1) 영과 혼과 몸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 (2) 당신의 혼은 죽음 이후에 어디에선가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제3장 혼에 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성경이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먼저 뇌야 할 기초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당신은 제한된 육신의 몸 안에 있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속고 있습니다. 진화론으로 인해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의 영향으로 죽음이 자신의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영원한 혼, 불멸하는 혼은 주님 앞에서 영원히 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죽으면 개나 소나 새처럼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의 혼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원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을 함께 보낼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것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은 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혼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영으로 인해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당신의 영은 영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당신의 몸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에 큰 관심을 두지는 않고 계십니다. 몸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운동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먹는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든 상관 없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 너무 관심을 두거나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대해서 걱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당신의 혼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운동(movement)이 있는데 다 몸에 관한 것들입니다. 환경 운동을 열심히 해서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도 사람은 여전히 죽을 것입니다. 수질을 아무리 깨끗하게 정화한다고 해도 당신은 여전히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들이마시는 공기나 먹는 음식으로 인해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당신이 죽는 이유가 바로 당신의 혼이 짓는 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나”(롬6:23a)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환경 오염의 값이 사망이 아닙니다. 수면부족이 죽음의 원인도 아닙니다. 의약품의 부재가 사망의 원인도 아닙니다.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를 만족시키고 존속시키려는 목적의 운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번의 바른 선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세요.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막8:34)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는 길에는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숨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무덤에 묻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따르면 죽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막8:35-37) 몸은 혼에 비하면 저렴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작품이기는 하지만 영원히 존속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내구성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한 육체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을 가꾸다 할지라도 금세 낡아 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든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혼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몸과 인생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원히 존속하는 존재가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

니다.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세상 자체를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혼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과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시적인 몸 안에 있는 영원한 불멸의 혼입니다. 에스겔서 18:4을 보십시오.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친히 만드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 안에서 우리를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주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므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시139:14)

주님께서 첫째 사람만을 만드시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도 친히 만드셨습니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 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시100:3)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고 주님께서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인간의 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몸을 만드셨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몸을 취해 가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혼도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겔18:4)

에스겔서의 말씀은 몸이 아닌 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를 짓는 혼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혼은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몸이 죽으면 사람들은 그 몸을 관에 넣어 무덤에 묻거나 화장해서 산이나 강에 뿌립니다. 그러면 부활의 날까지 몸은 가루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 있게 됩니다.

몸이 흙으로 돌아가 있는 동안 당신 자신은 어딘가에 있게 됩니다. 몸이라는 그 낡은 옷 안에 진짜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의복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혼도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히10:39)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를 짓고 죽음의 정죄를 받은 당신의 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은사주의 목사들은 자신들이 병든 육체를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환자들의 병든 육체가 아니라 그들의 지갑일 뿐입니다. 그들은 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혼인데도 말입니다. 만일 절름발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며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겁니다.

몸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 죽든 병약하게 살다 죽든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죽든 스키를 타다 죽든 죽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몸이 죽은 후에 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200년을 산다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수 백 년을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의 연수가 문자적으로 정말 수 백 년이었는지에 관해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수 백 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오래 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구백삼십 년을 살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창 5:5).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온 세상을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혼을 잃어버린다면,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그대로 지닌 채 죽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얻어도 당신 자신은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세요. 여기에는 헌물과 모형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형과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헌물과 희생제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그들이 주께 헌물을 드릴 때에 부자들은 만 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덜 내지 말지니라. 너는 이스

라엘 자손에게서 속죄 돈을 취하고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어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리라.”(출30:15-16)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문제에 부딪히고 두통을 앓고 실망을 하고 우울한 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100년을 더 살면서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육신을 입고 200년을 더 살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 백 년을 더 살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러나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자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모든 헌물과 제물은 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의 혼을 대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레17:11) 만일 당신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당신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육신적인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대속하심을 가리키고 보여주는 모형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교일 뿐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사람들의 몸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나가봐도 상황은 마찬가지 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책들은 모두 우리의 육신과 물질적인 복에 관한 것 들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보다 중요한 것은 죽은 이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모든 혼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그런데 그 혼은 대속이 필요합니다. 저의 혼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가 만들거나 이룰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미가서 6장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분 앞에 갈까?”(미6:6) 언젠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 나니”(히9:27)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롬14:12)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 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계20:12) 어느 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날이 되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 하고 모든 혀가 주님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빌2:10-11)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위치로 하나님을 뵈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만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미6:7) 구약 시대에 드리던 헌물로 인해 혼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히브리서를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비단 히브리서와 비교해 보지 않아도 미가서 자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혼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 제사로는 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고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러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의 혼은 죄를 지었고 당신의 혼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육신은 죽을 것이고 당신의 육신도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둘째 사망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로 인해 지옥에 가고 불 호수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당신은 우리의 혼을 위한 대속을 필요로 합니다. 저의 혼을 위한 희생제물이 필요하고 당신의 혼을 위한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저의 혼을 위해 죄 없는 육체의 피가 필요하고 당신의 혼을 위해 죄 없는 육체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53장과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사53:1-2) 지금 이 본문은 육체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3절) 죄는 당신에게 고통을 줍니다. 죄는 질병이나 통증이나 상처 등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당신의 몸에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몸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혼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오래 살다가 죽게 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죄를 지은 당신의 혼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4-5절)

본문에서 “부상”, “고침” 등의 단어가 나오자 이것을 우리의 육신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화평”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이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화평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병 고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혼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혼이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불안한 세상을 살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

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 도다.”(6-7절)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혼으로 죄의 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2:23-24)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고침 받은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혼입니다.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부분을 보면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몸이 아닌 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당신의 죄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값을 담당한 것은 주님의 혼이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8-9절) 여기까지는 예수

님의 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단지 죽어 주신 것이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0장에서 혼을 위한 대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7장에서도 혼을 위한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6장에서 대속물로 필요한 것은 육체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을 대속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혼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 제사로는 인간의 혼을 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혼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대속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은 사람의 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10절) 이제 주님의 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고통(grief)”은 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몸과 혼을 모두 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혼도 헌물로 드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 이전에는 어떠한 혼도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11절)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몸으로 저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몸 안에 있던 혼으로 저의 죄의 삶의 슬픔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과 피와 대속을 보시고 누구든지 그 대속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혼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입니까? 인간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겔18:4b)**

당신의 혼은 죄를 짓는 혼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혼이 죄를 짓기 때문에 혼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당신의 혼을 대신해서 대속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당신 스스로 혼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잠시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지매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행2:22-24)**

예수님께서서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병어리와 귀머거리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절름발이도 걷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왜 사람들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

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함이었습니다.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병 고침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그들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러한 기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사람들의 육신적인 건강이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그저 기적을 행하십시오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느낌을 원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건강하길 원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언젠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낡은 육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25절) 이것은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26절) 저는 이 육신의 몸에 있는 동안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25절에 의하면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고 몸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혼은 지옥으로 가서 우리의 죄를 모두 그곳에서 처리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으며 사망과 지옥의 열쇠로 지옥의 문을 여시고 나오셨습니다(계1:18).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혼으로 당신의 혼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혼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피부도 탄력을 잃을 것이고 주름은 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은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위한 대속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죄가 없는 몸과 죄가 없는 혼이 대속을 위한 헌물로 드려져서 그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죽음과 죄와 지옥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저의 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일3:2)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 온 세상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의 손자들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 좋은 것
을 해 주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자녀들과 손자들도 언젠가는 영원으로 들
어가게 될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
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의 이웃의 혼은 구원받
았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몸을 헌물로 드린 것이 아님에 감사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혼을 헌물로 드리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으세요? “죄를 짓
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겔18:4b)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막8:36) 예수님께서
는 자신의 혼을 우리의 혼을 대속하기 위한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보다 더 중요한 문
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러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
다.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요약

- (1)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혼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 하셨습니다.
- (2)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 었습니다.

제4장 죽음 이후의 삶

우리는 성경이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흠으로 만든 일시적인 거주지인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영원하고 영존하는 존재인 혼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에 있는지, 혹은 지옥에 있는지 상관없이, 성경은 그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혼이 소멸된다는 것은 미신적인 생각이고 거짓말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게 되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몸이 죽는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36을 보겠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삶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37-38절)

이 구절의 관련 구절은 요한복음 12:23-24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의 법칙은 당신이 죽어야만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넘어서 존재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 줍니다.

누가복음 9장과 신명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분께서 벤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 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신 34:5-7) 이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모세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주님의 종인데도 죽었습니다. 그는 반역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종이었지만 그럼에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백이십 세였고 여전히 건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력도 여전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모세가 노년까지 건강했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섬김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달려야 할 경주가 끝났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을 보면 그의 죽음을 관장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모세를 묻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장례식도 이렇게 주님과 관계 있는 편이 좋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뼈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

일 그들이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알았더라면 그곳을 성지로 지정해서 성지순례를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알았더라면 무슬림이나 가톨릭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곳을 성지로 지정하고 순례를 하며 모세의 뼈를 숭배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을 비밀로 해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덤의 위치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죽게 하시고 묻으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 의하면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휴거 되지도 않았고 들림 받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는 죽었고 주님께서 묻으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눅9:28-31)

우리는 이번 시간에 누가복음 9장의 본문을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죽어서 묻힌 사람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기 이미 천 년이 넘는 기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는 육신의 죽음으로 그 존재가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례식으로 모세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혼은 육신의 몸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으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만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 들아, 너는 네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눅16:19-25)

우리는 이번 시간에 지옥이나 아브라함의 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온 세 사람입니다. 그들은 오래 전에 죽었지만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감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생각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육신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첫째 책인 창세기 중간 부분에서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살아서 지옥에 있는 부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는 이미 수천 년이 지났고 그의 몸은 완전히 분해되어 이미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죽었고 천사가 그를 낙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세처럼 주님께 서 직접 그를 물어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장례식에 천사가 참석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나саро가 죽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의 혼을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집도 없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죽었을 겁니다. 그는 쓰레기 통을 뒤지며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후에 낙원에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적이며 비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 잘 사는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인도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몽고에서도 그런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수단이나 파나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과 아시아나 중남미는 경제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지역에서 진리가 아닌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진리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해서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개와 함께 식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고 나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고 나서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죽어도 당신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죽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생

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제3:5).

당신이 만일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모르십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명단인 생명책을 봐도 그의 이름은 지워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떤 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아직도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누군가에게 부르짖고 있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 있을 때 일들을 기억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따르면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든지,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기에 동물이나 마찬가지로는 것은 모두 허황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부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큼이나 저 세상에서도 살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육신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공허한 약속일 것입니다. “**궁홀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

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엡2:4-7)

만일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끝나버린다면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의 존재는 소멸되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마 저는 영원에서도 하나님의 수업시간에 살아 있는 교재로 사용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혹은 수백 만년이 지난 어느 날 사람들이 황금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망각하거나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잊었느냐? 나의 공훈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잊었느냐?”라고 물으시며 근처에 있던 저를 부르실 겁니다. “여기 누가 있는지 보거라.”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걸어 다니는 기념비”입니다. 에베소서 2:7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단순히 저와 당신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훈과 자비와 사랑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의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엡1:7-12)

“충만한 때”라는 것은 미래의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충만한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해도, 영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도, 분명한 사실은 저는 그때도 여전히 존재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들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도 주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지옥에서의 구원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의 영광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몸이 죽었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끝나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약속은 거짓이 되어 버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과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진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고전3:12-15)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행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산 인생에 대해 책망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롬14:12) 만일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끝나게 된다면 죽음 후에 있는 심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래지 않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각자 행한 대로 상을 받거나 책망을 들을 겁니다.

이제 다른 구절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 본다고 보다는 대략적인 사실들만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되”(계20:1-4)

“목 베인 자들의 혼들” 이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을 베었기 때문에 몸은 죽었지만 그들의 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마10:28)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 저편에도 살아있는 혼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지 일시적인 육체 안에서 영원한 혼의 거주의 종말을 의미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 천 년이 다 차매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5-7절)

사탄이 있던 감옥은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입니다. 사탄도 천년왕국 동안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지옥에서 다 타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옥불로 인해 존재가 다 타버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천 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주님의 계획으로 다시 일시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은 몸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큰 사슬에 의해 붙잡혔습니다(1절). 그 사슬이 어떤 사슬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사슬에 잡힐 만한 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³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 이상 비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도 여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문자적인 것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문자적인 마귀가 문자적인 천사에 의해 문자적인

3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슬이 문자적인 사슬인 것은 확실하지만 물질적인 사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탄이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본문에 나온 사슬이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사슬은 아닌 문자 그대로 사슬입니다. 다만 이 사슬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잡을 수 있는 사슬일 뿐입니다.-역주

사슬에 묶여 문자적인 감옥에 문자적으로 천 년간 갇힙니다. 그러다 일시적으로 풀려나서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게 됩니다.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8절)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평화를 원합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이 땅에서 천 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들이 천년 동안 평화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평화롭게 살면서 주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다 해도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하자 그에 동조해 버리고 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 이라.”**(고후5:17a)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개선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갖고 침례나 세례를 받고 천년왕국에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같은 옛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요3:7)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거듭남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공약을 남발합니다. 자신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고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없이 그냥 내뱉은 말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신에게 표를 달라는 말일 겁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9절) 이것이 제4차 세계 대전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으

로 전쟁은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10절)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이미 천 년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귀도 이제 불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과 함께 고통 받게 된 것입니다.

“영원무궁토록” 이들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다만 이들은 불 호수에서 고통 받을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이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11-12절)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지 오래 되었지만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죽은 사람들과 그 이전에 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대환난 시기에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오늘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제2차 세계 대전 때 죽은 사람도 있고 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가인도 있습니다. 가인은 7천년 가까이 지옥에서 불탔지만 여전히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이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이들도 6천 년간이나 지옥에서 불탔지만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최후의 심

판인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흠으로 돌아가서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은 몸일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자기 몸 안에 거하는 영존하는 혼은 계속 살아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받게 됩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13-15절) 성경에 의하면 매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혼이 거하는 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당신의 혼은 일시적인 집인 당신의 몸을 벗어나면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하늘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사탄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과 함께 고통 받게 하기 위해 불 호수로 던져 집니다. 이것은 모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영원한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얼마나 많은 돈을 벌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든,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류층이든 하층민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의 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온통 자신의 몸

이나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신의 혼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약1:2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혼을 생각하시며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환난 때에 순교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큰 흰 왕좌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놀랍고 기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혼의 구원의 받으십시오. 당신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요약

- (1)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 죽음으로 그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2)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혼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 (3)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불 호수)에서 영원무궁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제5장 영원한 정죄

마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 성경이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 전에 세워야 할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 일 시적이고 유한한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살펴 보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이 영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 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막10:28-30) 본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제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막 3:28) 여기서 “영원한 정죄”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주목하세요.

성경은 영원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육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육신의 몸을 떠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영원에 대해 두 가지 형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징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경우 모두 존재가 소멸하지 않고 끝이 없이 영원히 유지됩니다.

죽는다고 해서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존재는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8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든지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당신이 몸을 떠난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이러한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도 지난 며칠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이 무디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보는 즐거움은 말할 수 없이 큼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병들어 누워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선포할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

를 들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를 선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오래된 진리(복음)”의 반복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겁니다. 생명도 영원하고 정죄도 영원합니다. 영원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영원이 무엇인지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3:14-18)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을 16절에서는 “영존하는 생명(everlasting life)”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생명이 끊임없이 영속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죄가 끊임없이 영속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지 몇 년간만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몇 백 년만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몇 천 년을 지옥에서 고통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지옥에서 꺼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옥에서의 정죄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옥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를 더 이상 듣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은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음 아픈 진실보다는 듣기 좋은 거짓말을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게 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영원한 저주가 없다면 이러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헛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보내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만일 영원한 형벌이 없다면 십자가의 대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과 정죄와 형벌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지만 매우 현명합니다. 마귀는 지옥을 실존하는 장소가 아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상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휴, 여기는 마치 지옥 같군.”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지옥 같은 곳은 없습니다. 어떠한 장소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비하면 절대 나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장소나 상황도 지옥 같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지만 지옥에서의 고통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⁴

지옥에서의 고통만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늘나라

4 천년왕국이 끝나면 지옥 자체도 불 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옥 자체는 끝이 있지만 불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은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계20:14). - 역주

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도 영원합니다. 하늘나라는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있고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한숨이 없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곳에서 단지 한 주나, 한 달이나, 일 년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통령 선거 유세를 도우러 온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그들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하는 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고 지지를 받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실 뿐이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성경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요3:18). 죄인이 되기 위해 극도로 사악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죄면 죄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한 사람만 죽여도 살인을 한 사람이고 한 번만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죄를 지은 사람, 즉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한 죽음에서 나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매우 편협하다고 주장합

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편협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편협하고 불공평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쉬운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편협하고 불공평한 것입니다. 무슬림이나 힌두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무신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입니까?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사실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에 따라 그것을 믿는 사람인 제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딤후 1:2)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못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일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적도 없고 간음을 한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신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에 관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3:36).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머뭇거리л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롬 6:22)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 6:23)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미국에서는 할로윈 때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줍니다. 아이들은 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하여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선물을 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감자나 당근을 주던 집도 있었습니다. 큰 초콜릿을 받은 아이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치과의사들은 할로윈을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내일 친구들에게 당신이 받은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거야.” 할로윈 때 아이들이 공짜로 초콜릿을 받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단지 믿기만 하면 공짜로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6:23에서 의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살 필요도 없고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종교는 구원을 복잡하게 합니다. 자존심은 구원을 어렵게 합니다. “구원을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은 구원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have)”**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순간 바로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의자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앉아도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앉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앞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그 의자에 앉아도 그 의자는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앉아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의자에 앉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이 쉼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의자에 앉아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을 믿음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자에 앉아도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실제로 의자에 앉지는 않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믿고 실제로 사용하여 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36에 나온 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단순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육신을 떠날 때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진노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악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 위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옥에 가는 실제적인 이유는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선택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은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만일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러한 것들이라면 가난하거나 병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이나 세상에서의 번영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선물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나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됩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살든지 정죄와 형벌 속에서 영원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지금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나 집이나 학교를 저주합니다.⁵ 미국 사람들은 “damn”이라는 말이 욕이라고 생각해서 더러운 말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거룩한” 말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가구나 학교나 자동차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십니다.

“저주(damn)”라는 단어는 단순한 욕이나 더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는 거룩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라.”고 하면 매우 기분 나빠합니다. 또 욕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하기도 합니다.⁶ 저는 단 한번도 “게헨나⁷에나 가라.”고 욕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번도 “소멸되어 버려라.”고 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⁸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를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기에 극

5 영어에서 “damn”이라는 표현은 저주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욕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damn school”을 직역하면 “학교를 저주하소서.”라는 말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빌어먹을 학교” 정도가 됩니다.-역주

6 “지옥에나 가라(To hell),”는 표현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흔하게 사용되는 욕입니다.-역주

7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은 성경에 계시된 지옥의 존재를 실존하는 장소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인 게헨나라고 주장합니다.-역주

8 여호와의 증인들은 인간의 본질이며 인간 자체인 혼이 영원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소멸되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그의 존재가 끝난다고 믿는 것입니다.-역주

도로 분노하거나 화가 났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옥에 가라.”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기를 원할 때 “지옥에 가라.”고 저주를 합니다. 아무런 신학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이러한 욕은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도 가장 큰 고통의 장소가 지옥이라는 것을 아는 이유는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지옥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 하리라.”(요10:27-28) 보시는 바와 같이 영원한 생명은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약속은 현재형입니다. 믿으면 그 순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멸망은 미래형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현재 시점에서는 멸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때서야 멸망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멸망은 미래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29-30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저는 아무런 가진 게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eternal)”이라는 말은 성경에 4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
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
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
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요
17:1-2)

저의 육체는 강하지도 않고 능력이 많지도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
니다. 언젠가는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이미 제 몸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몸은 언젠가 사망에 완전히
삼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서 활동을 시작한 죽음
보다 훨씬 강력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
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
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this is life eternal)”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것입니다. 독자 중에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 온 사람들은 모두 저를 만났습니다. 저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를 만난 것입니다. 아직 깊은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
지만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이처럼 쉽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종교행위를 하거나 단체에 가입하거나 헌금을 하고 무
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니라.” 이렇게 주님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
습니다.

구원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접니다. 죄인이에요.”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원해요. 영원한 정죄를 피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반갑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란다.”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잡아 주실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구원은 의자에 앉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실제로 의자에 앉는 것은 행동이 필요하지만 구원은 어떠한 행위도 없이 마음으로 믿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 소개를 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실제로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해 주신 일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롬6:23)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구원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사탕을 주면 아이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으면 됩니다.

구원이 단순하고 쉽다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바라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려운 부분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부분을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멸시와 모욕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

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운 부분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부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는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생명과 정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이렇게 쉬운데 사람들이 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도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중에 무엇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건가요? 하늘나라 대신 지옥을 선택하겠다는 건가요? 복 대신 저주를 선택하겠다는 건가요? 기쁨 대신 고통을 선택하겠다는 건가요? 도대체 무엇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건가요?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요약

- (1) 성경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는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생명과 정죄입니다.
- (2) 성경에 의하면 구원은 매우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제6장 영원한 혼과 영원한 몸

우리는 몇 주에 걸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범하지 않은 단어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났다(quickened)”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성경적 의미는 “살아 있게 만 들어서 다시는 죽지 않게 한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죽음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으로 인해 죽음 이후에도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 육신의 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몸도 그 자체로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은 죽음으로 인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제 혼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몸의 생명도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당신의 삶에서 죽음은 단지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에게 죽음은 어딘가를 가기 위해 거쳐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끔찍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조금이라도 지연하려고 노력합니다.

베드로전서 3:18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풍성한 진리

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대신 다른 누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무하마드가 죄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처나 공자나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면 다른 누구의 이름을 넣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만을 가르칠 뿐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못합니다. 죽음의 순간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는 단어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고난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처음 고난을 받으실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단 한번의 고난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대가가 치러지지 않은 죄는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당신이나 제가 짓값을 치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짓값을 치르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들의 짓값을 치러주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종교인들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그렇기를 희망한다.”고 대답합니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듭났느냐고 물으니 “자신이 아직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와 비슷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확신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사제가 어떤 마법적인 말을 하면 한 조각의 빵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한다고 믿습니다.⁹ 그들은 사제가 집전하는 제사인 미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제물로 바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미사 때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종교인데 매우 인기가 좋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미 당하신 단 한번의 고난은 모든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거나 계속해서 미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고 그 한 번의 죽음은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전7:20)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한 자”는 누구일까요? “의로운 자”인 예

9 이러한 이론을 “화체설”이라고 합니다.-역주

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의로운 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모든 사람이 지은 죄들과 짓고 있는 죄들과 앞으로 지을 죄들의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고, 희생물이며, 죄값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단지 죄가 나쁜 것이고 그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이유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불교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무슬림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뉴에이지 운동가들과 마법사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악한 자들과 이교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열거한 이러한 사람들의 죄가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만일 당신이 “불의한 자” 중의 하나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신이 자동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값이 치러졌고 대속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하

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라고 하십니다. 대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대속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당신은 “불의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려가셔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려가셔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 말든 그러한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포르노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비도덕적이 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모두 인간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마귀의 사역은, 당신의 마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정죄 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당신을 재빨리 종교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결길로 가서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그에게 교회에 가서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아니면 선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술을 끊으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 주기도 합니다. 묵주기도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신들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옳다는 그룹을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 보이는 종교에 가입해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의를 쫓아 마귀에게 미혹되어 곧장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적인 초대를 받아 개인적인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4:6).

많은 종교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떠한 종교라도 제대로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종교가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하시기 때문에 착하게 잘 살기만 하면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마귀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일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이 그저 하늘에서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시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일하게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인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강제로 들어가게 하거나 밀어 넣으시지는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계실 뿐입니다.

이 세상에도 당신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평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유엔 본부에 가서 대회의실에 그냥 걸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문을 열기도 전에 경비원들이 와서 저를 제지할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도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들어가기에는 당신의 자격이 턱없이 부족한 장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당신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초청을 받는다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초청을 받고 대통령이 직접 인도해 준다면 그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저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하늘나라의 문을 지키는 분일 뿐만 아니라 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자체이십니다. 침례증서나 세례증서를 보여준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교회의 회원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 거기에 응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추천을 받아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셔서”라고 말씀하십니다(벧전3:18).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고 나서 주님은 단순히 살아 계신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계신 것입니다.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계1:18) 계시록 1:18이야말로 “살아났다(quickened)”는 단어를 가장 잘 정의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방해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죽음이 다시는 주님의 생명을 방해하거나 중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대속이 되신 희생물은 다시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신 분께서는 계속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한번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당신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존재라는 사실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엡2:1-2) 이것은 당신의 과거에 대한 묘사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악한 영을 따라 걸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

의 자녀들이었으나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3-4절) 1-3절은 과거의 당시에 대한 묘사입니다. 당신은 악한 자를 따라 악한 길을 걸으며 육신의 욕심을 채웠고 결국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가 바로 4절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5-7절)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이 잠자고 있다든지 혹은 하늘나라나 지옥이 아닌 중간지대에 있지 않는 것인가요? 왜 연옥이나 환생이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단순히 생명을 얻을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받을 때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가 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저는 죽고 나서 잠든 상태에 있다든가 어떤 중간지대에 거하지 않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몸의 죽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자신의 은혜로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명은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영

원히 죽지 않으시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혼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이 강대상 위에서 쓰러져서 숨을 쉬지 않고, 저의 몸에는 어떠한 생명의 신호가 없다 할지라도 제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저의 혼은 결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혼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저의 혼은 단지 죽어 없어져 버릴 몸에서 벗어났을 뿐입니다. 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살리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와 동일한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언젠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은 정글이나 산속 깊은 곳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이나 바다나 아마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으로는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1800년대 중반에 피지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가던 영국 해군의 배를 얻어 탔습니다. 당시 피지에서는 카니발과 부족들 간의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부족은 패한 부족의 인육으로 카니발을 즐겼습니다. 이 부족들은 매우 사나웠습니다. 영국 해군은 피지 해안에 정박하고 동승한 선교사들을 작은 배를 통해 육지에 내려주려 했습니다. 제독은 선교사의 부인에게 피지 섬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육지에 내리지 말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영국 군인들도 죽임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선교사의 부인은 영국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독은 선교사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왜 영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굳이 저런 곳까지 가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녀는 군함에서 작은 배로 내려가는 줄을 잡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독님, 저는 이곳에 오기 오래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죽음이 다시는 저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죽음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간 이후에 섬의 여러 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러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들이 지녔던 마음은 여호수아의 담대한 마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여호수아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고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어떠한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어려움이나 이 세상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면 당하게 될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혼은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저의 몸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가 된 저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엡2:6). 로마서 8장을 보세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8:11)

당신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언젠가 저의 죽을 몸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살리셨던 그 동일한 능력의 영이 저의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았던 그 동일한 몸을 가지고 무덤을 나오셨으며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다시 동일한 그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동일한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바로 그 동일한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실 것이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계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영

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막아서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멀리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기록한 경우가 많은 반면 신약성경은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언젠가 모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71편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여, 주의 의가 또한 심히 높으시니이다. 오 하나님여, 주께서 큰일들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내게 크고 쓰라린 고난들을 보이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음으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존귀를 증대시키시고 사방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시71:19-21)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땅을 묻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욥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4장에는 부활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욥 14:1) 우리는 모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1절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2절)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긴 상관없이, 얼마나 잘 나간 간에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러한 자를 향하여 주께서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함께 심판 자리에 이르게 하시나이까?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3-4절) 이것이 바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정결치 못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거나 깨끗한 것을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르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의 날들이 정하여졌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사 그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처럼 자기 날을 마칠 때까지 안식하게 하옵소서.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베일지라도 다시 움이 돌아 그것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것의 뿌리가 땅 속에서 오래되고 그것의 줄기가 흙 속에서 죽을 지라도 물 냄새에 싹이 트고 초목처럼 가지들을 낼 것이로되”(5-9절)

베여 버린 나무도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한 가지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이 나무에 닿으면 뿌리가 다시 생명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는 다시 한번 생명을 받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한 알의 밀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 봄이 되어 비가 오고 따뜻한 햇살이 그 땅에 비치면 그 밀알은 뿌리를 내고 싹을 내어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일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오래 전에 죽은 나무 가지인 지팡이를 땅에 심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은 하나님께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자의 혼을 살리셨으며 몸도 살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죽음의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이러한 모든 약속은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서로 다른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서로 다른 것을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끝나지 않는 생명을 당신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러한 생명을 나눠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죽어 있던 우리를 살려 주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였다는 말 외에는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의 문

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셨고 대신 죽어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버지께 소개해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인도해 주기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마11:28)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6:37)

믿는다는 것은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전선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켜집니다. 믿음으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믿는 자들의 혼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몸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 (1)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 (2)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제7장 지옥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유한한 몸 안에 한시적으로 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영원으로 들어갈 것이고, 다른 사람의 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주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쫓겨나 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은 세 가지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나약해 빠져서 어떠한 부정적인 사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보통의 목사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 교회에 고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는 고객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약한 청중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전혀 말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에 관한 설교는 오늘날 거의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교를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구원받는다고보다는 지옥에 가기 원치 않아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나서는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므로 하늘나라를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간음, 음행, 술, 마약, 그리고 음란한 파티도 없는 곳에서 영원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거기에 가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히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을 장소에 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늘나라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는 하늘나라보다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지옥과 심판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들을 수 없는 둘째 이유는, 청중의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는 경우, 선하고 정직한 설교자들도 지옥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청중의 가족 중에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지옥에 대해 설교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은 채 죽은 경우 지옥에 대해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의 말이 기록된 단 한 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전해주어 아무도 그곳에 오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는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나라에는 못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났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오늘날 지옥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들을 수 없는 셋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안수를 받은 설교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

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지를 배운 목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4년제 신학교를 나오거나 3년제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인데 신학교에 다닐 동안 한 번도 지옥에 대해 듣거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업시간에도 지옥에 대해 듣지 못했고 채플 시간에도 듣지 못했고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들도 이 세상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지옥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에는 어느 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나오든 간에 하늘나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때는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라디오나 인터넷을 통해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무도 지옥 불, 영원한 저주, 형벌, 끝없는 구렁, 불 호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과거에는 바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명제가 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바르게 살아야 하느냐고 따져 묻는 시대입니다. 주위에 경찰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도둑질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살인 계획은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46을 보세요. “그런즉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3:29도 보세요

요.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다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 있는 친척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 교회에 돈을 바친다고 해서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주는 영원합니다. 심판도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육신을 부인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속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저는 지금 당신의 직장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쇼핑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찌지, 나를 비웃으면 어찌지, 나에게 화를 내면 어찌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 지옥에 가면 어찌시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이나 원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과 형벌은 단순히 영원한 것일 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육체의 죽음 이상의 것입니다. 유다서 7절을 보세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낫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은 첫째 죽음을 경험했고 둘째 죽음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9장에서 음행으로 인해 그 도시들을 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죄를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동성연애의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온갖 부도덕한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 그 도시들을 태워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받은 지 10년 후에 가서 보면 계속 불타고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면 불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아닐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은 하늘로부터 온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도 불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생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끝날 수 없고 그렇게 끝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혼은 영원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 빛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어둠 가운데 던져지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14:6)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지옥이

나 불 호수에 던져지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을 수 있게 해 준 일이 잔인한 것인가요? 구원받기 위해 빌당을 세울 필요도 없고 수 십억을 낼 필요도 없고 선행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은 무시하면서 자신이 행한 “대단한” 선행으로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선한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방법을 싫어할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면 영원한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고통은 피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처받고 아픈 게 싫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43을 보십시오.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손을 찍는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만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면 왜 손을 찍어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만일 죄를 지어도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끝나게 된다면 손을 짚어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생에서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형벌이 존재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형벌을 피해야 합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짚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눅 9:43-44) 저는 제 손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손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손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손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손을 잃는 것이 혼을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정의하든지 상관없이 지옥은 실재하는 장소이며 고통의 장소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목사들은 지옥이 단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고 가르칩니다. 단지 선이 없는 곳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옥이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만일 당신이 옆집에서 나는 큰 비명을 듣고 나가서 보니 이웃집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히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저 사람은 나를 비웃을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119에 신고를 하고 도와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웃이 처한 상황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 같지만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향해 아무것도 모른 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

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옥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 자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주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 데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45을 보세요. “만일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어떻게 자신의 발을 찍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엄청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막9:46). 저는 휠체어에서 평생을 보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지옥에 가는 것과 두 다리 중에서 선택해야만 한다면 저는 두 다리를 포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린 걸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뼈가 드러나 보이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도와주려고 했다가 괜히 저 친구를 귀찮게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바로 도와주려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큰 사고를 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동료가 발이 다쳤을 때에는 도와주려고 하면서 지옥에 가고 있는 것은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데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무언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 중에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47을 보세요.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 중에는 한 쪽 눈이 유리로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종종 자신의 눈을 빼곤 했습니다.

눈먼 자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눈먼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수강했던 사회학 과목의 강사는 학생들에게 두세 시간 동안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눈먼 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 저는 더욱 눈이 소중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눈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고 하십니다. 육신적인 시력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눈이 멀고 손과 발을 잃는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6:19-21을 보겠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만일 성경이 여기서 끝난다면 당신은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만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누가 더 낫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돈과 집과 건강이 최고일 겁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저는 나사로보다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만일 성경이 여기서 끝난다면 저는 부자보다는 나사로가 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종교들은 영원한 형벌을 믿지 않습니다. 낙원에 가는 것은 믿지만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빌리 그래함도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은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래함과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은 22절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이야기는 하지만 지옥에 가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인간의 존재는 지금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몸은 죽었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부자는 그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는 여

전히 살아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중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나사로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쓰레기 통에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는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휴가는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 안에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사로는 단순히 거지가 아니라 영존하는 혼이었습니다.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존하는 혼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구원받았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내게 공흘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도 있어서 볼 수도 있었습니

다. 부자의 몸은 썩어 없어졌지만 그의 혼은 몸적인 형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죽으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겠지만 몸과 같은 형태의 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혼이 바로 당신 자신인 것입니다. 같은 기억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 자신인 것입니다. 몸이 죽어 없어진다고 해서 혼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내게 고통을 베푸사”라고 했지만 그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만나이다, 하거늘” 부자가 받는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불 속에 있지만 완전히 타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원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자는 살아생전 먹던 진수성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방울의 물을 원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이, 너는 너의 평생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부자는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영적이고 뛰어난 사람이 친족일지라도 지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다섯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 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경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경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말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도 모른 채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겠지.”하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도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하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린다거나 기분 나쁜 소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얼마나 자신의 일에 소홀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지옥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생소하거나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9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

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만일 당신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만이 그러한 사실을 당신의 마음에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독자 중에는 지옥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듣기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간에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룬 업적 같은 것은 당신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날, 그가 어디에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더 이상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부자가 죽은 다음날, 그가 어디에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부자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영원을 보내든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나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의 실상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매일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엄청난 고통의 장소에 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약

- (1)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 (2)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3)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 (4) 한번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 (5) 선한 하나님은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해 놓으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 (6)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제8장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와 지옥 모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의 다른 모든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나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이나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진리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인기 없는 일임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고 배척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건 우리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합에게 도움을 요청한 여호사밧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을 것이고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저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저 전할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왕좌도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보다 위대하고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통치하시고 하늘나라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늘나라는 문이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누가복음 24:50-53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킹제임스성경이 아닌 변개된 성서들에는 51절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들과 헤어져 어딘가로 가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헤어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삼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자신이 살아 있음을 많은 무오한 증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 사역을 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계시던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52절에서는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주님을 더 잘 믿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면 당신도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쳐버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모두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자신이 무덤 앞에 있었다면 더 잘 믿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는 주님의 무덤을 봤지만 오히려 두려워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의 안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가셔서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나서야 믿는 자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능력과 힘과 기쁨과 복과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17에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믿는 자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았을 때 자신들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사람들이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제자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이 정복되었으며 사망이 패배했고 썩음이 극복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주님의 죽음이나 부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실 것임을 본 이후에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12을 보세요.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대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께서 동일한 몸을 입고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구원자로, 올리벳 산에서 가신 그대로 올리벳 산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16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같은 책 6:9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14절에서도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단순히 전지전능하신 창조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이제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저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아들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저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선행을 행하셨으며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저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만일 제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니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니 저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창조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늘나라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유일한 아들을 보내어 저를 대신해서 죽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롬5:8)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해 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해 주신 일을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요일3:1)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저를 위해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저의 작은 지체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늘나라가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위대한 것은 그러한 보석들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위대한 것은 진주로 된 문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나무도 보고 싶고 수정으로 된 바다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저를 위해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진주로 된 문이 저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황금 길로 인해 제가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은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당신의 구원자가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며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연애를 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은 자신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둘이 함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해 합니다. 둘이 함께 있기만 하다면 메뉴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메뉴나 음악이나 웨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다면 하늘나라가 무엇으로 되어있는지보다 그곳에 계신 분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인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인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늘나라는 단순히 영토나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늘

나라가 의미 있는 것은 크기나 위치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분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저택이나 황금 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룹들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도 그룹들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룹들은 놀라운 창조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그룹들이 그곳에 없다고 해도 전혀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천사들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사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해도 전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만 계시다면 천사들이나 그룹들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그 말이 흰색이라고 하고 있고 시편에서는 그 말에 날개가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니콘은 단순하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동물입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러한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유니콘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그곳을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와! 주님, 황금 길은 어디 있나요? 유니콘은 어디에 있나요?”라고 하자 주님께서 “유니콘은 죽었고 황금 길은 사람들이 뜯어가 버렸느니라.”고 하신다고 해서 실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늘나라나 새 예루살렘에 대해 공부할 때 그곳의 크기나 위치나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만 그곳에 계신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계신 분이시 그곳 자체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위대한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칠십 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눅10:17-18) 당신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보다 더 능력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마귀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에서 살지 못할 겁니다.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마귀는 이 세상에 와서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19절) 이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적으로서의 병고침이나 기적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뱀을 잡는 것은 자유지만 해를 입지 않는다는 약속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20a절)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 더 기뻐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사람의 영이든 더러운 영이든 천사의 영이든 마귀의 영이든 영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은 사역에 필요한 일일지는 몰라도 기쁨의 원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20b절)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야말로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것은 진주로 된 문이나 보석으로

된 벽이 아닙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께서 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그 책을 생명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이나 하늘나라에 있는 그 무엇도 이것보다 더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살기는커녕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간신히 하늘나라의 문을 통과했다 해도 바로 그 순간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마7:23)는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방언을 한다거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의하면 그러한 일은 전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기뻐해도 됩니다. 만일 당신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생명책 외에도 우리가 흥미를 가질 만한 것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주제가 항상 물질적인 것에 한정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택과 황금 길과 진주문 혹은 하늘나라의 위치와 크기 등.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주님

께서는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등.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 중의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남겨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아흔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눅15:3-7)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칼빈주의자건 알미니안주의자건 상관없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모두 기뻐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큰 기쁨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축구경기가 승리해서도 아니고 집값이 올라서도 아니고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도 아니고 복권에 당첨되어서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시는지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당신의 욕망을 채울 것을 주님께 구했다가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나요? 성경에 의하면 물질적인 것은 결코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이 혼을 만족시키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좋은 것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공훈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벧전1:3-4)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나중에 많은 것들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집안이 망하게 되면 상속받을 재산은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상속 재산은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상속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상속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늘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면 꽤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새 예루살렘의 거처에 있는 발코니에서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놀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는 단순히 거하는 장소일 뿐이 아니라 대단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전망이 좋은 집이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게 될 곳도 드넓은 우주가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

든 것을 아들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제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오분 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만 결코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산타클로스는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이내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다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자 애씁니다.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좋은 곳에 가도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을 얻고자 돈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갖은 고생을 다 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의 여행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눅6:23) 당신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문맥을 보기 위해 22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세상적인 사람들이 당신을 비평하고 깎아 내리고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보상을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고난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피하거나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많이 당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950년대 이래로 무수한 박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60년대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고 70년대나 80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상을 받기는커녕 지금도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받을 보상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구원자도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진정한 기쁨도 모두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받을 보상도 모두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서는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마6:19-21)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교회 시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었고 문맥을 봐도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시대에도 도둑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에도 녹이 슬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에도 좀이 먹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세대주의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교회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투자한 곳에 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물질적인 것들에 투자를 했다면 당신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가 있을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면 당신은 오래지 않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투자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하늘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하늘나라에서 중요한 일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는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이러한 일에 투자하고 있다면, 성경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보화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선교사를 돕지 않는다면, 말씀이 전파 되도록 돕지 않는다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도록 돕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해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현명하게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보화도 하늘나라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보화는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투자를 했습니까? 하늘나라에 투자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투자를 했습니까?

요약

- (1)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 (2)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것은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지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아닙니다.
- (3)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 (4)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제9장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성경이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보다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마음에 두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나라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그곳은 박물관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만일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없다면, 당신은 아마 쪽 둘러본 이후에 “꽤 멋지기는 하지만 생명은 없군.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네.”라고 할 겁니다. 아무리 멋진 것이라도 질리게 마련입니다. 오직 무한하신 분만이 혼에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보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요3:12) 이것은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신 관점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서의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땅 위에서의 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봐야 받아들이지 못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여섯 날개에 네 얼굴을 가지고 있는 창조물에 마

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엇이 핵심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성향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핵심적인 요소는 그룹이나 스랍이 아닙니다. 왕좌를 둘러싼 무지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왕좌 위에 앉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그분의 옷이나 생김새나 거하시는 곳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나라로 한번 여행을 다녀온다면 무엇에 대해 후기를 남기게 될까요?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하늘나라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갔습니다. 흥미롭게도 요한은 하늘나라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주님께 대해서 기록했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지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계시록 4장과 5장, 그리고 7장과 14장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할 때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큰지, 혹은 작은지, 머리는 무슨 색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 다.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들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던지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조차 예수님을 중심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늘나라를 여행했다가 돌아온다면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셨고 저것을 하셨고 왕좌에 앉으셨고 흰 말을 타시고 심판을 하시고 하는 등의 이야기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와 열왕기와 욥기에서 하늘나라에 대해 묘사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교회가 들림 받은 이후의 하늘나라에 대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늘나라의 물질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에서 하늘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런 식입니다. “나는 들림 받았었고 하늘나라를 보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¹⁰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와 관련하여 받은 계시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계시는 오직 영광의 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계신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사6:1)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웃시야 대신 아무나 넣어도 됩니다. “존 F. 케네디가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로널드 레이건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엘비스가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10 고린도후서 12:1-6 참고-역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누구의 이름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위대한 사람이 죽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 죽어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죽어도, 부자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룹들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랍들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사장도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수한 천사들도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주님 말고 다른 무엇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수호 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제 안에 거하고 계시고 저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호 천사가 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것은 놔두고 보다 덜 중요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사야가 하늘나라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좌를 보았고 성전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도 주님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왕좌도 주님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하늘나라에 있는 왕좌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도 그 안에 구원자께서 계시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피라미드 같은 것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위대하신 것은 과거에만 위대한 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이 위대한 이유는 그곳에 살아계신 구원자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왕좌가 위대한 이유는 거기에 앉아계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무엇보다 거기에 계신 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여섯 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2절) 이제 스랍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요? 지금 이 스랍들은 교회의 모형인 리브가가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을 만날 때와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랍들이 놀라운 창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스랍을 보게 된다면 그들의 영광에 압도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스랍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신들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이삭 앞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받을 왕관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든 간에, 당신이 받을 보상이 얼마나 많건 간에 상관없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 당신은 그 앞에서 겸손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뛰어나심으로 인해 당신은 스스로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신들이 한 일을 자랑하는 목사와 사역자를 많이 봤습니다. 자기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자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실컷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서는 당신도 스랍들처럼 자신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3절) 스랍들이 한 말이 놀랍지 않으세요? 스랍들은 온통 주님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라는 사실로 서로를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만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도 그리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당시 사람들의 타락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1장부터 5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썩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랍들은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온통 주님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랍들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 보는 것은 주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 보던 것은 주님의 위대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 보던 것은 주님의 순결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던 것은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불결한 것들, 경건하지 못한 것들, 영적이지 않은 것들, 바르지 못한 것들만을 바라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그러한 것들보다는 주님

을 좀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썩어빠진 것은 아닙니다.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올 바른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깨끗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사야가 스랍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스랍들이여, 이것을 보시오. 예루살렘은 타락했소.”

그러면 스랍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스랍들이여, 이것을 보시오. 사람들이 탐욕에 찢어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있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스랍들이여, 이것을 보시오. 여기는 죄가 넘쳐나고 있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기 원치 않는다.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을 바라 볼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은 건재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당신이 무엇을 바라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한지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를 보는데도 한 사람의 눈에는 거둡나고 회개하여 새로운 창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저 위선자들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보는데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달린 것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온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해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

는지에 따라 보이는 것도 다릅니다.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니라.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므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였더라.”(4-5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주님의 면전에 다가갈수록 겸손해집니다.

저는 죄악 된 인간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이사야는 왕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끼리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완벽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두 말할 필요 없이 좋은 교회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더 좋은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족할 수 있는 더 좋은 교회로 가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힘이 됩니다.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모두 옳은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렸을 때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된다면 그러한 자랑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낮고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으며 무엇을 하고 하는 것과 같은 자랑은 자신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닮았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과 닮았습니까? 언제나 주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처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므로 망하게 되었나니”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을 바라 봐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 왕좌에 앉아 있지 않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당신 같은 사람이 그 왕좌에 앉아 있지 않다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므로 망하게 되었나니”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당신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당신을 더럽힌 적은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혀는 다른 어떤 지체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길들이지 못하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가 지옥 불을 불리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약3:6) 성경은 입이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이 무덤이면 혀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혀의 더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자신의 혀가 얼마나 불의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므로 망하게 되었나니” 왜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을까요? 답은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습니다.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였더라.” 스랍들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고 마음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고 마음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때에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계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불법이 제거되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6-7절) 요한일서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1:9)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사과를 하거나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상태를 인정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단지 죄송하다거나 용서해달라거나 다시는 하지 않겠다거나 인생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

신이 부정한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발가벗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 어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서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주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수백 번 기도를 해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수천 번 기도를 해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교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 간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도와주시고 당신과 교제를 나누실 겁니다.

“네 불법이 제거되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사야는 어떠한 제사도 드리지 않았고 헌물도 바치지 않았고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에 응답하시어 그의 죄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8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창1:26).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창11:7)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위해 가시겠습니까? 누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가시겠습니까? 누가 성령님을 위해 가시겠습니까? 이사야는 예언자(prophet)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예언자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설교자(preacher)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설교자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진리를 증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은 단순히 진리를 알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구령하고 교도소사역을 하고 거리설교를 합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이용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자만심이 깔려있다면, 그 일로 인해 자신을 드높이려는 동기가 숨어 있다면, 자신과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있다면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주의 음성”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주님을 바라보면 당신은 자원하

여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당신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면 당신의 자아, 즉 당신 자신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선이 사람들을 향하게 되면 당신은 주님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가서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을 바라 보게 되면 당신은 가지 않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이사야는 주님을 바라 보았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날개가 여섯 개나 달린 생물이 있다면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능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사로 잡힌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흥미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아갔습니다. 이사야서 7:14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메시아의 처녀탄생의 영광도 보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9:6-7에 가서는 재림의 영광도 보게 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연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

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사야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영광을 모두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3-8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돋우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백성은 참으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사40:3-8)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자원하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2:1-4을 보겠습니다.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자신을 그 영광에 복종시켰으며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지상사역을 보게 된 것

입니다.

이사야서 53:4-8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구원자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자원하여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1-2을 보겠습니다.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이사야

는 자원하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신약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죄사함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당신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당신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당신이 주님을 높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밤새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어떠한 계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높일 때 비로소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기에 주님의 처녀탄생과 십자가의 대속과 신부인 교회에 관한 예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이신 분이 당신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지식이나 연구능력이나 두뇌에 영광을 돌리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단 두 글자도 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단 한 문장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사야서 63:1-4을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 자가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 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이까? 만백성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이사야가 자신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하심에 사로잡히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권능과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계시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였노라. 내가 하루 종일 내 손을 펼쳐서 자기 생각을 따라 선택지 않은 길로 걸어가며 반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나니”(사65:1-2) 이사야는 재림 이후의 일들에 대한 계시도 받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사65:17-18)

이사야서 66:1-2도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하나님

께서는 이사야에게 처녀탄생에 관한 예언을 보여주셨고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에 대한 예언도 보여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지상 사역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의 대속과 교회시대, 그리고 재림과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사야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받아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교제를 나눠주시고 진리를 계시해 주시겠다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는 매우 중요한 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거룩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머리가 좋아도 주님께서는 전혀 그러한 것에는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죄를 짓지 않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이것은 다윗의 찬양이자 고백입니다. 52편에 의하면 다윗은 전가된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2편에 의하면 확실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1편에 보면 아직도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구원을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간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51:10)

깨끗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바른 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성경에 의하면 올바른 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상한 영(a broken spirit)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깨끗한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바르게 옷을 입고 성별 된 삶을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자만심과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정말 추악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가 당신의 아이보다 낫죠.” “우리 남편이 당신의 남편보다 낫죠.” “우리 교회가 당신의 교회보다 낫죠.” 이러한 자만은 모두 주님 앞에서 추악한 마음일 뿐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인간이 자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 잡혀야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황금길이나 진주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면 스랍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위대한 사람들로 인해 놀라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와 저기 R.A. 토레이 좀 봐. 저기 존 웨슬리도 있네. 대단하다. 그런데 남자가 머

리가 좀 긴 거 같은데. 머리 좀 깎아야 겠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놀라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와 저기 계신 저분을 보세요. 저 위대한 구원자를 보세요. 저 분이 바로 예수님이예요.”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면 다른 것으로 인해 놀라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으로 인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한 분의 모습과 한 분의 음성과 한 분의 영광에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직접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때, 저를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그곳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저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성인들이나 위인들을 만나거나 그들을 우리러 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오직 한 분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요약

- (1)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 (2) 신앙생활의 열쇠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 (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10장 새 예루살렘

우리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공부할수록 저는 제가 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됩니다. 당신도 바른 선택을 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 천 년이 다 차매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계20:5-9)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천년간 통치하신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사탄은 놓임을 받자마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바로 붙잡혀서 불 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은 짐승과 거짓 대언자의 운명에 대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계 20:10) 예전 설교자들은 지옥에 유황이 있다고 설교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계19:20) 독자 중에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전혀 걱정하거나 영원을 대비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한 존재는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 년이 지난 후에도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곳에 단 5분도 있고 싶지 않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죄로 인해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 받는 장소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끔찍한 정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후에 맞게 될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20:11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베드로후서 3:10에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큰 흰 왕좌 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 때에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모두 주님의 능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창조물이 일순간에 사라져 없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성경에 의하면 죽음으로 인간의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음이란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 받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부터 오직 선행만 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과거에 행한 악행을 지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삭제하고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귀중한 피를 통한 구원입니다.

계속해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 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지옥은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에 반해 불 호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에서의 고통도 끔찍한 것이지만 불 호수에서의 고통은 훨씬 더 합니다. 지옥과 불 호수는 구치소와 교도소 같은 관계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심판을 받기 원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의 행위나 다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저를 대신해 준다 할지라도 결과는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대신해주실

때에만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지금까지 제가 읽은 말씀은 모두 부정적인 것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구원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면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어떠한 종교나 단체도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이 외의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도 쉽게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사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어리석을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리석으면 지옥에 가느냐 하면 자신의 행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으면 됩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연옥이나 중간지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망과 지옥까지도 모두 불 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종착지는 불 호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멋진 교회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지옥의 정죄를 피하게 하고 끔찍한 불 호수의 고통을 피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1절) 이 부분을 보면 환경운동가들은 아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살리고 강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살리는 일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이나 나무나 초목에다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이나 환경을 걱정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혼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해 보시면 신부가 얼마나 열심히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신부입니다. 본문에서는 요한도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여자는 결혼하면 다른 어떤 남자보다 자기 남편을 위해야 합니다. 남자는 다른 누구보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성경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묘사할 때에는 항상 그 하늘나라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하늘나라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 하늘나라를 하늘나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병들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방향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냈을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잠시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 대화를 나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면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이 얼굴과 얼굴을 보고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장소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거하게 될 곳이 어떤 곳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 거하게 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매우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과 직접 마주보고 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당신은 주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주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전에 지상에 있을 때 제임스 닉스 형제에게 이 구절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대답을 해 주지 못하고 자꾸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서는 저자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당신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들림받는다고 해서 눈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고 해서 눈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고통을 주던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영원이 시작되기 직전에서만 비로소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한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하늘나라에 가서야 맞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장소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으로 이 두 곳 중에 하나에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늘나라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하늘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지옥에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급차도 없고 병원도 없고 무덤도 없습니다. 당신은 슬픈 일들이 지겹지도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거나 병드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지치지 않는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게 될 곳은 더 이상 부고장이나 장례식이 없는 곳입니다.

제가 가게 될 곳은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짓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저는 더 이상 골치 썩일 일도 없고 몸도 아프지 않고 마음이 찢어질 일도 없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 받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응급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떠한 종교나 사람이나 신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없어서도 아니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못 믿는 이유는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의 말을 믿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구원은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믿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 완전히 사라졌고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한 집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제시하는 것이 이보다 못한 것이라면 더 이상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요19:30)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의 기쁨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거기서는 죄값이 다 치러졌

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미리 치른 값에 대한 일이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값을 치르심에 대한 것이고 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치른 값에 대한 일이 모두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하늘나라에서의 복은 모두 무료입니다. 오직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까? 물을 마시고 싶습니까? 그럼 마시면 됩니다. 구원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됩니다. 전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어렵게 만듭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하고 침례를 받아야 하고 영접기도를 해야 하고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평생에 걸쳐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그냥 믿고 바로 구원받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서서는 저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신 일을 제가 믿으니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일 당신도 원한다면 즉시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일서 5:4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당신은 무엇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황금 길을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진주 문을 주리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결코 인간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러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거듭해서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부류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숭배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마법사들” 마법사들은 마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음행을 일삼는 자들” 이 세상에서는 “취향”에 속한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일삼는 자들도 싫어하십니다. “살인자들” 성경을 보면 하

나눔께서 살인자들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증한 자들” 성경은 가증한 자들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불 호수에 들어가는 자들의 목록 중 첫째에 “두려워 하는 자들”을 넣으셨습니다. 미국인들은 뉴스미디어와 게으른 설교자들 덕분에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살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음행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마법이나 거짓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건 상관없이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물론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왕이면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생활이 변화되는 것으로 마음이 차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을 암송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 귀찮은 일들이 생기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러 가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삶의 일들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느라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이나 눈물이나 인생의 문제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마음에 입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새로 다니는 교회에서는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살인이나 우상숭배나 마술을 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당신을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으시고 믿음 없는 자는 불신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으시고 가증한 짓을 하는 자는 가증함으로부터 구해주실 수 있고 살인자는 모든 정죄로부터 구해주실 수 있으며 음행을 하는 자는 모든 중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마술을 하는 자는 모든 헛된 술수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으며 우상숭배하는 자는 그의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고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기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9-11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 주리라, 하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

의 영광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도시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11절b) 수정교회는 이것을 보고 흥내 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참된 영광은 이 땅에서가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열두 문이 있으며 그 문들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으니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주님의 영광을 소개한 이후에야 비로소 다른 것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13-16절을 보겠습니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만 이천 스타디온은 1500마일 정도 됩니다.¹¹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것으로 봐서 이 도시는 정육면체입니다. 이것은 미국 서부 지역만한 크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도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도시냐 하면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 큰 도시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마7:13)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

11 1500마일은 2414km정도 됩니다.-역주

니다.

17-18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매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백사십사 큐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도시가 순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건물이 상상이 되십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 가면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19-20절을 보겠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 기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만일 당신이 가지 있는 보석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기초석으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새 예루살렘의 보도블록을 황금으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건물의 기초석을 삼으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러한 것이 더 이상 보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한쪽 벽이 1500마일이나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벽 전체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보석은 엄청나게 큰 보석임이 틀림없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문 전체가 하나의 진주로 이루어졌다면 엄청나게 큰 진주일 겁니다.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길이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경배에 있어서 교회 건물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도 건물 안에서 경배를 드렸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건물에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이는 장소인 건물이 본질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전파하는 것이 당신의 종교나 교회라면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본질입니다.

만일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시면 성막은 그냥 텐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시면 성전은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사교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시면 하늘나라는 박물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소를 빛내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거하지 않으시면 장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주님께서서는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앉아서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수정과 같이 투명한 유리 같기에 새 예루살렘은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광채가 전 우주를 비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어둠이 나옵니다. 이 어둠은 마귀의 배신과 그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 어둠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충만할 것이고 그 빛은 전 우주를 비출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빛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한 빛이 되실 것입니다.

24-25절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문을 닫을까요? 안전 때문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나쁜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을 닫거나 잠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문을 항상 열어놔도 상관없습니다.

26-2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 안으로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본문은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지 다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했던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22장은 좀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 주니라.” 생수 중에 “생명수”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품의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신성모독적인 짓입니다. 저는 “예수식 다이어트”라는 제목의 책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셨는지를 추적하여 그것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의 강은 도시 한 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그 양쪽으로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나무가 강 양쪽으로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나무가 균락을 이루어 많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찾아보면 하나의 나무인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생명나무, 그 나무(the tree of life, the tree)”라고 특정해서 하나의 생명나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의 나무에서 매달 한 종류씩 열 두 종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매달 서로 다른 열매가 열립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식물로부터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물질을 추출하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민족들을 치유하는 나무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생명나무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무나 식물의 잎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구절에서 끄집어 내어 장사의 수

단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모든 저주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5-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보다는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놀라운 것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오리라(Yes, I am coming soon.)”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I come quickly)”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날이나 시간이나 때나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주님은 빠르게(속히)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때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천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

습니다. 주님께서는 “곧 오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속히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주님의 오심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빠르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요약

- (1)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점입니다.
- (2)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면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이 얼굴과 얼굴을 보고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 (3)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고통을 주던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야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 (4)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11장 하나님의 평안

2천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이 실존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의심하는 사람은 적지만 그분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논쟁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언자였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스승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의 신앙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과 랍비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점쟁이들과 심지어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든지 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은 믿지 않으면서 그분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적인 일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논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소위 이

세상에서 종교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기독교든 아니든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를 만들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물이며 세상의 빛이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을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거짓말쟁이로 여겨야 합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거리에서는 “땅 위에는 평화가 있고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라는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절반만을 인용합니다. 이 세상은 한번도 성경을 제대로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절반만 인용하든지 아니면 문맥을 무시하고 일부만 인용하여 원래의 문맥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전쟁과 범죄와 폭력을 멈추게 하려고 오셨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개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2천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당신 개인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이 세상 안에서는 참된 평화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천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믿는 자들 개인에게 평화를 주러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평화롭지 않자 예수님을 실패자로 여긴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도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교회의 목적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함이라면 교회 또한 실패작일 뿐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교회 자체에 평화가 없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평화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독자 중에도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과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그 평화를 전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원하지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선물을 주시고 떠나버리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물만 주고 떠나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집으로 와서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주는 분을 거절한다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과 이사야 57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많이 들어본 구절일 겁니다. 먼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본문에 의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11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임했다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 있다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구원자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값을 치러줄 누군가가 왔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12-14절)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앞의 부분은 빼먹은 채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라는 부분만 인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갖게 되려면 먼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려면 먼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을 실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상품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장사꾼들이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감 공장 사장이나 상점 주인이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구원받고 나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쓴 뿌리

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만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성경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지 그 다음에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하마드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상에게 헛된 경배를 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이 땅에 결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새긴 형상이나 우상을 섬기는 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자연을 숭배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선행을 의지하거나 종교를 믿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무슬림, 유대인, 아랍인, 중국인, 미국인, 남미인, 북미인, 서부인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봐야 이 땅에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를 뒤돌아 보면 그러한 바램은 망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한 이 세상에는 결코 평화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 개인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면 그 한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사로 영광을 받으시거나, 당신의 재능으로 영광을 받으시거나, 당신의 성공으로 영광을 받으시거나, 당신의 실패로 영광을 받으시거나, 당신의 호흡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그 어떤 종교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편협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면 편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이 더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편협하다고 비평하는 사람도 어떤 영역에서는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낫다고 평가합니다. 여러 종류의 맥주 중에 유독 한 종류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담배 중에 한 종류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낫다고 하면 편협한 것이라고 하면서 어느 한 맥주가 다른 맥주보다 낫다는 말은 서슴없이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광고는 어느 특정한 제품이 다른 제품들보다 뛰어나다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한 가지 상품의 뛰어난 점을 선전하기 위해 다른 제품을 비평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 다른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입을 상처는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고를 보고 편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유독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알리는 것에는 편협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교회에만 위선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위선자들이 많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종교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편협하다고 하면서 다른 제품보다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이 뛰어나다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산타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산타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57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의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그들의 물은 진흙과 오물을 내느니라.”(사57:20)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만들어 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마15:17-20)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21절) 음란한 잡지를 판매하는 상점이 있는 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라디오에서 더러운 음악이 나오는 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극장에서 더러운 영화가 상영되는 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음행과 간음과 온갖 더러운 일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평안을 소유하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가정에 구원받은 부모와 구원받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 가정에 평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으로 인해 찬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서 사악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오직 사악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옵니다.

평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유행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사탕발림 같은 것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 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렘6:14)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좌절하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고쳐 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세상이 준 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진정으로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 이후에 있을 지옥불의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있는데도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 증인, 설교자, 예언자, 대언자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하면 헌금이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지배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교회의 크기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헌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첫째가는 존재 목적이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평화의 왕” 대신 평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이유가 바로 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닌 사람들 간의 평화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이유도 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살전5:1-2) 도둑은 보물을 훔치러 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오셔서 저를 이곳으로부터 데려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3-4절)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거짓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평안을 가져오는 구원을 주십니다.

이제 미가서 5장과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하나의 인격체(person)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격체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인격체가 말로 참된 평화입니다.

먼저 미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리니 그들이 머물리로다.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사람은 화평(peace)이 되리라.”(미5:4, 5a) 성경은 평화(peace)가 바로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평화는 어떤 운동(movement)이 아닌 한 사람의 개인(individual)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나 기관이나 정신이나 감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체(person)입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사9:6) 만일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평화를 원한다면 즉시 가질 수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폭탄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이라도, 병원 중환자실 병상 위에서도, 안 좋은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최악의 정치인이 정권을 잡

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곳곳이 부패하고 썩었다 할지라도 당신은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이웃이 변하지 않아도, 직장이 변하지 않아도 당신은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격체이신 한 분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한 아이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혼들을 구원하고 소유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불행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평안을 주시고 현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평안을 주십니다. 양심의 괴로움과 지옥의 두려움으로부터 평안을 주십니다. 옛 성품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두 개의 그림이 전시관에 걸려 있는데, 한 그림에는 단단한 바위 위에 하얀 색으로 된 큰 집이 있고 앞에는 푸른 바다가 있고 위로는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평화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옆에 걸려 있던 그림은 폭풍이 치는 바다에 있는 바위 위에 어미새가 날개를 펴 작은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도 평화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평화란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화란 사방에 문제가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2천년 전에 오신 이유가 폭풍을 잠잠케 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함인 줄 알았기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천년 전에 오신 이유는 모든 문제와 폭풍 가운데에서 자신의 날개를 펴서 그

아래로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2천년 전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로 인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평안으로 인해서 문제에 부딪히고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평안은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7) 성경에 의하면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2천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함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그러한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천년 전에 오신 것은 군대를 해산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천년 전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한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엡2:13, 14a) 당신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도 **“그분은 나의 화평이시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구원자가 되시는 한 이러한 모든 혼란과 문제 속에서도 저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평화도 되셨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았으면 합니다. 참된 평안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된 평안도 없습니다.

요약

- (1) 예수님께서 2천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개인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 (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성경은 평화(peace)가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나 상태가 아닌 한 인격체(person)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4)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지만 평화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12장 재창조와 하늘나라의 위치

우리는 성경이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주의 구조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고린도후서 12장과 창세기 1장과 이사야서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 인격(혹은 위격, person)이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는데 이것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주도 같은 구조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세 개의 하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가 있는 대기권의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후 12:2) 사도 바울은 지금 한 사람에 대해 묘사하면서 그가 셋째 하늘로 들려올라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개의 하늘이 존재한다는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을 기억하면서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다. 이사야서 14장은 창세기 1:1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직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직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사14:12)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루시퍼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탄 즉 마귀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새국제역본12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새국제역본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를 “새벽별(morning star)”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입니다. 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책을 성경이라고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사14:13) 마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타락한 이유는 그가 범한 악한 행위 때문이 아니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마귀의 죄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외형적인 죄만 피하려 하고 내적인 죄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죄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마귀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고 마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

12 새국제역본,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1978, 새국제역본에는 이사야서 14:12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How you have fallen from heaven, O morning star, son of the dawn!” 결국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는 사실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역성경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하여 역시 사탄의 이름을 가리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16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새벽별(morning star)”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개역성경이나 새국제역본에 의하면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개역성경과 새국제역본은 성경을 변개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역주

신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마귀를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내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렁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사14:13-15) 마귀는 여기서 다섯 번에 걸쳐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I will). 성경에 의하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self will)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세우려던 것이 바로 사탄의 죄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땅이 있고 그 땅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하늘이며, 첫째 하늘의 경계는 구름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대신 첫째 하늘 위로 올라가고,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대기권인 첫째 하늘이 있고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위치를 떠나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시편 48편과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셋째 하늘에 대해 말씀하실 때 북쪽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북쪽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이다.”(시48:1)

하나님께서서는 도시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도시를 새 예루살렘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 도시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 도시는 아직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는 북쪽에 산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시편 기자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 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시48:2)

성경에 의하면 셋째 하늘에는 한 변의 길이가 1500마일인 정육면체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새 예루살렘이라 불립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별개의 도시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셋째 하늘에서 북쪽에 있는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산은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꺾꺾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 씀하시는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히12:18-19)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산은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 중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산은 그 어떤 산이라도 인간이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은 누구도 이를 수 없는 산입니다. “오직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히12:22-24)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혹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한 도시가 시온 산이라고 불리는 산 위에 있는데, 이 산은 대기권과 우주 너머 하늘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루크 스카이워커¹³라 할지라도 당신을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데려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 공중으로 들림 받게 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당신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당신은 결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과 창세기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과 하늘나라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논쟁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다루는 주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형제와 교제를 단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늘나라에 대해 계시하고 있는 것을 연구하는 즐거움을 누릴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당신이 연구한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슷한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

13 우주를 배경으로 한 공상 과학 영화인 스타워즈(Star Wars) 시리즈의 주인공.-역주

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벧후 3:3-4)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창세기 1:1 이후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세상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관점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5-6절) 이 구절들에 의하면 2개 이상의 하늘과 하나의 땅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하늘과 하나의 땅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7절) 본문은 하늘에 대해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복수로 “하늘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하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을 보면 하늘이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창세기 1:1의 시기에는 하늘이 아직 하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과거에 물로 심판 받은 하늘들과 땅이 있습니다. 또 미래에는 불로 하늘들과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7장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노아의 생애

에서 육백 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십칠일 바로 그 날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 물들이 불어서 십오 큐빗 위로 오르매 산들이 덮이고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라.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창7:1, 7, 11-12, 20-22)

성경에 의하면 노아의 시기에 있었던 홍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물이 내려와 땅에 있는 산의 꼭대기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홍수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다른 홍수를 다룬 기록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홍수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홍수와 노아의 홍수는 서로 다른 홍수입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죽은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창9:1)¹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구의 거주민들이 모두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임무는 지구를 다시 거주민으로 번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수로 멸망하기 이전처럼 다시 거주민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바로 노아 가족의 임무였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를 온전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새국제역본이나 새미국표준역본¹⁵의 경우 이 부분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14 우리말 흄정역 성경에는 “땅을 채우라.”고 되어 있지만 King James Bible에는 “replenish the earth.” 즉 “땅을 다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역주

15 새국제표준역본, NASV,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1971.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창1:26) 구절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창1:27-28)¹⁶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는 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창세기 1:1 이후에 하늘과 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즉 재창조가 없이 원래의 창조모습 그대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지 않음에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에서는 창세기 1:1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과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들이 기쁨의 찬양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포함한 영적인 존재들이 창세기 1:1의 시점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 왔을 때 사탄은 이미 타락한 존재로서 그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5장을 인용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므로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인간들에게 죄가 유전된 것은 아담으로 인

16 여기서도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땅을 채우라.”고 번역했지만 King James Bible에는 “replenish the earth.” 즉 “땅을 다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역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아담이 죄를 짓기 훨씬 전에 사탄이 먼저 죄를 짓고 사탄이 죄를 세상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담이 죄를 짓기 오래 전에 이미 죄를 지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베드로후서 3장의 이전에 있던 물로 망한 세상의 “남은 자”였습니다.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악 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보다 먼저 타락했고,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타락시켰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을 통해서였지만 아담보다 먼저 타락한 창조물이 아담을 시험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속했던 세상보다 먼저 존재했던 세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¹⁷

제가 재창조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임스 나스 형제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의해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이 재창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과 이사야서 45장을 보겠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

17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는 홍수와 노아의 홍수가 서로 다른 홍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리를 “재창조 교리”라고 합니다. 재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간극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재창조를 부인하는 측에서는 재창조를 지지하는 측이 아담 이전에 인류가 존재했다고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창조 교리에는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담 이전에 지구에 거주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인류가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 이전에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찬양을 했다고 욥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다고 가르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역주

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45:18)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에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2에 의하면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을 만드셨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주하게(to be inhabited) 하기 위해서 땅을 만드셨습니다.¹⁸

창세기 1:2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창조를 망쳐놓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와 그 존재가 거주했던 장소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에서 “어둠(darkness)”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본다면 그것은 항상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것은 어둠이었다.”라는 주장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짓된 주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어린양께서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2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가져온 결과일 뿐입니다. 누가 어둠의 통치자입니까? 만일 당신이 어둠의 통치자를 따른다면 당신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신 모습입니다.

18 우리말 흠정역 성경에는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지만 King James Bible에는 “...formed it to be inhabi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존재가 거주하게 하기 위해 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45:18이 바른 번역이 되려면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는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가 되어야 합니다.-역주

이제 예레미야서 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거기에는 빛이 없었고”(렘4:23) 예레미야서 4:23과 일치하는 구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과 같은 표현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1:2입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창1:2) 예레미야서 4:23은 창세기 1:2의 참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4:24-28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새들이 다 도망갔고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온 땅이 황폐할 터이나 내가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애곡하고 위에 있는 하늘들이 검게 되리라. 내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이 구절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구절들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묘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노아의 홍수 후에도 노아의 가족, 즉 8명의 사람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 4장의 구절들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관련 구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예레미야서 4장의 묘사가 대환난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환난을 통과하여 천년왕국 전에 있을 마태

복음 25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양과 염소의 심판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일부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4장의 구절들은 대환난에 대한 구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의 말씀은 지역적으로는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결과 땅이 형태가 없이 비어 있으며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에 대한 묘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에는 어떠한 인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2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펴본 것이 사실이라면 아틀란티스나 이스터섬, 거인족들에 관한 흔적들, 수백 만년이나 된 생명체들의 화석들에 대해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드러난 증거들을 부인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뜯어 고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6천년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6천년 전에 창조되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다른 창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다른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가 6천년 전에야 비로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¹⁹

욥기 2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로 말하건대 그는 땅(earth)을 소유하였으며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살았도다.”(욥22:8) 예수 그리스도

19 일부 그리스도인 과학자들 중에는 우주와 지구와 인류가 모두 6천 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으로도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출현(아담의 창조)을 6천년 전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지구와 우주의 연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구와 우주의 연대를 6천 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결과적으로 불신자들로부터도 간증을 완전히 상실하는 일일 뿐입니다.·역주

에 의하면 “강한 자(strong man)”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마12:29). 그렇다면 “존귀한 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두 명의 존귀한 자가 나옵니다. 바로 첫째 사람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첫째 사람인 아담은 속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지만 아내를 위하여 알면서도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죽을 줄 알았음에도 아내와 함께 죽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강한 자(사탄)”가 소유한 땅에서 “존귀한 자(아담)”가 살았습니다.

“네가 과부들을 빈손으로 내보내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팔을 꺾었다. 그러므로 올라미들이 너를 둘러싸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괴롭히며 또는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넘치는 물들이 너를 덮느니라.”(9-11절) 팔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땅을 소유했던 이 “강한 자”는 “물들로 심판을 받을 만한 어떤 일(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그것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12절)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좌를 탐내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시는지 보여주시며 마귀는 하나님의 왕좌에 앉을 만큼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왕좌에 오를 만큼 위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님의 왕좌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물들이 너를 덮느니라.”

“뿔뿔한 구름들이 그분을 덮은즉 그분께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순환 회로에서 다니실 뿐이라, 하는도다.”(14절) 이제 이사야서 14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 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그들은 때(time)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에

휩쓸려갔느니라.”(15-16절) “때(time, 시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전에, 즉 “때가 되기도 전에” 심판을 받은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사시대”라는 말을 쓰는데 욥기 22장이야말로 진정한 선사시대에 대해 묘사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인류가 존재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선사시대”에 살던 지구의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담의 자손들이 읽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고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영적인 존재들이 읽도록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자손들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위해 대속하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탄이 행한 모든 일을 심판하셨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관여한 모든 일과 그가 손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고 앞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하였으되 그분께서는 좋은 것들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의 계략은 내게서 아주 멀리 있느니라.”(17-18절)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과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3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세상들”이라고 하여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16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여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16에서 말하는 세상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3에 의하면 세상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존재했음(혹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일2:1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단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세상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3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의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히브리서 11:3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1:3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1:2에서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창1:1)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무(無)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에서 무로부터 무엇인가의 존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2절a) 이것은 예레미야서 4장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2절b) 이것은 이사야서 45장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2절c) 이것은 모든 것이 물(홍수)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은 욥기 22장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창1:3-5) 이 말씀이 정확히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든 욥기 22장은 이보다 더 빠른 시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욥기 22장은 때(시간, time)가 되기 전이기 때문인데 시간의 개념이 생긴 것은 창세기 1:4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

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
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6-7절) 문맥을 계
속 살펴보면 “만드사(made)”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
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기어 다니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문자적인(지금 우리의
하루와 같은) 6일 동안 만드신 것들이 나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에 기록
된 대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진
화론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 날도 24시간이었고 둘째 날, 셋째 날도 24시간이었습니다. 창세
기 1장의 하루와 지금 우리의 하루는 정확히 같은 하루입니다. 어떻게 이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하루는 지금으로 치면
수백 만년과 같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만년간
일을 하고 백 만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엉뚱한 계명이 탄생하게 됩니
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루는 지금 우리의 하루와 정확히 같은 하
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은 지금과 같은 6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6일 만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세
상은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세상도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에서 창조하신 것으
로부터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재창조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
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믿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도 일종의 재창조라

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재창조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있을 재창조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창조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전에 있던 땅이 있었고 창세기 1:2 이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땅이 있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온 앞으로 있을 새 땅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 의하면 세 종류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방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개의 땅이 있는 것처럼 하늘도 세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 개의 하늘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데다.”** (시19:1)

물론 당신이 제가 가르치는 재창조에 대한 교리에 모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누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성경은 분명하게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수백만년 이상 되었고 인류는 6천년 되었다는 사실과 성경은 전혀 모순을 이루지 않으며 오히려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과 성경이 다르다고 해서 성경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증거와 성경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을 고칠 필요도 없고 자연 그대로의 증거를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새로 창조된 것은 큰 물고기들과 물에서 나온 창조물들과 공중의 새들과 인간입니다. 이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과 이미 있던 것들이 재창조 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태양계와 지구와 식물과 물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벌레들의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의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

에 의하면 인류의 연대가 6천 년이라는 사실은 매우 명백합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나머지 다른 창조물들도 6천 년으로 끼워 맞춰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창조물이 6천 년 되었다는 자신들의 가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화론자나 혹은 현대 과학에 동조하는 불신자들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들을 취하시고 궁창(firmament)을 만드셨습니다. 물이 딱딱하게 되면(firm-water) 무엇이 될까요? 얼음이 됩니다. 욥기 26장과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권세 없는 자를 네가 어떻게 도왔느냐? 기력 없는 팔을 네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지혜 없는 자에게 네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또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네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것들은 물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욥26:1-7)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셋째 하늘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과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늘들은 빈 공간에 펼쳐지게 됩니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늘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탄이 망쳐놓은 모든 창조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홍수로 씻어 버리시고 나서 홍수에 사용하신 그 물을 다시 취하셔서 딱딱한 고체로 만드시고 북쪽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셋째 하늘)과 우주(둘째 하늘) 사이에 두심으로 하늘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땅(지구)은 둘러싸고 있던 물이 사라짐으로 공중에(허공에) 매달려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있기 전에 지구가

먼저 존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물들을 자신의 뻥뻥한 구름 속에 싸매 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8-10절)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와서 온 지구를 밝히고 전 우주를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빛을 두껍게 얼어있는 물 층으로 가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의 빛을 셋째 하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셋째 하늘을 넘어서는 비치지 않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망원경을 발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야 간접적으로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욥기 11:7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성경에 의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찾아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완전히 찾아낼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나누는 두꺼운 얼음 층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속한 창조 세계에서는 단단하게 언 큰 물 층으로 완전히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그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들을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13:12).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80년간 성경을 연구한 것보다 죽어서 5초간 하나님을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수많은 성경 교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이 지상에서 가르쳤던 것을 취소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 자신이 그러한 것을 가르쳤는지 후회할 것이며 성경을 더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모두 재교육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경을 연구할 뿐입니다.

이제 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좌 둘레에 스물네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스물네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계4:1-6)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얼어 있는 물 층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

하고 있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입니다. 성경은 이 물이 얼어 있기 때문에 “수정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매우 많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낙원에 대해 상상할 때 아름다운 섬이 바다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리곤 합니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의 위쪽은 밝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고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그 영광의 빛을 그대로 반사해서 다시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정 같은 유리 바다의 아래쪽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필요하고 달이 필요하고 전등과 등불과 촛대가 필요합니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계 15:1-2)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람들은 유리 바다 위에 서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유리 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환난 때문입니다.

욥기에 의하면 대환난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땅에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또 큰 해일이 일게 하실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하나님께서 심판 때 사용하시는 무기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시편 29편과 7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8편에 의하면 주님께서 북쪽에 있는 산에 앉아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주께서 큰물(the flood) 위에 앉아 계시나

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시29:10) 성경은 주님께서 “홍수(the flood)” 위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²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땅은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상을 멸망시킨 그 홍수를 단단하게 만드셔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두시고 경계를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이나 북쪽에 있는 셋째 하늘에 앉아계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75편을 보겠습니다.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시75:6) 성경은 높이는 일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올까요?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라면 남는 것은 북쪽입니다. 북쪽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인 홍수 위에 있는 산에 있는 거룩한 도시에 있는 왕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계4:1)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께서 계신 왕좌를 찬탈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그분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려 했던 사탄은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에 단단히 미혹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20 우리말 흠정역 성경에서는 “주께서 큰물 위에 앉아 계시나니...”라고 했지만 King James Bible에서는 “The LORD sitteth upon the flood;”라고 되어 있습니다.-역주

대학에서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비평하는지 아십니까? 대학에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진리를 증거할 만큼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대학은 지식을 습득하고 토론하기 좋은 곳이었습시다. 저는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고 토론과 논쟁을 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즐겁게 대학에 다녔습시다. 제가 수강한 과목 중에는 성경을 비평하기 좋아하는 교수가 가르치던 것이 있었습시다. 그는 매 강의 시간 5분 일찍 강의를 마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시다. 그는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고 저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시다. 우리는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매번 그 5분간의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성경과 진리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시다. 그는 한 학기 동안 4번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했습시다. 시험지마다 150개의 문제를 출제해서 총 600개의 문제로 학생들을 평가했습시다. 저는 600개 문제 중에 600개를 모두 맞혔지만 그는 저에게 B학점을 주었습시다. 이것이 바로 고등교육이라 부르는 것의 실상입시다.

이제 창세기 7장을 보겠습시다. 여기에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노아의 생애에서 육백 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십칠일 바로 그 날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물들이 넘쳐서 땅 위에 크게 불어나매 방주가 물들의 표면 위로 올라갔으며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치므로 온 하늘 아래 있던 모든 높은 산이 덮였더라. 물들이 불어서 십오 큐빗 위로 오르매 산들이 덮이고”(창7:11-12, 18-20)

성경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때 모든 높은 산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시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지구 상에는 모든 높은 산을 완전히

잠기게 할 만한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산보다 십 오 큐빗 이상 물이 더 차오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물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깊음의 모든 샘들**”과 “**하늘의 창들**”은 땅 밑에 즉,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경계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8장에 의하면 홍수가 끝났을 때 물들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창8:3) 즉 홍수를 일으켰던 물들은 하늘의 창들을 통해 왔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랜드캐년에 가면 가이드는 수 백 만년 전에는 협곡 전체가 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물이 협곡을 정확히 가를 수 있었느냐일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던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서 그러한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도 매우 많은 물이었고 지구를 움직일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가르치는 교리에 모두 동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네 이웃의 의견에 동의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과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햇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히 1:10-12) 주님께서서는 하늘을 의복이나 휘장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오 주 내 하나님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분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시104:1-2)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막의 원형은 하늘이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하늘의 구조를 원형으로 한 모형이었습니다.

성막에는 사람이 머무르는 바깥 뜰이 있고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주는 거룩한 곳인 성소(holy place)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the most holy place)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주는 것이 바로 휘장(커튼)입니다. 그 휘장을 지나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은 전체가 큰 휘장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성경이 세 개의 하늘들에 대해 하시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막은 우주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과 아모스서 7장과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계20:11) 여기서의 땅도 사라졌고 하늘도 사라졌습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

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 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 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 더라.”(계20:12-21:2)

방금 읽은 계시록의 구절을 기억하면서 아모스서 7장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려고 외치시니 그 불이 큰 깊음을 삼키고 일부분을 먹어 치웠느니라.”(암7:4)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벧후 3:13)

이제 우리가 읽은 세 부분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흰 왕좌 심판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남자와 구원받지 못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모두 드러났고 그들은 정죄를 받고 불 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는데 태양이나 달이나 별은 새 하늘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유리 바다라고 부르는 깊음 위에 불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불 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이시기 때문에 불 호수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깊음이라고 불리는 유리 바다의 한편에는 새 땅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그곳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유리 바다의 다른 편에는 불이 있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그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불이

있는 곳과 새 예루살렘 사이에는 유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깥 어둠입니다. 거기에는 불은 있지만 빛은 없습니다. 빛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새 예루살렘과 바깥 어둠 사이에는 유리 바다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셋째 하늘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셋째 하늘이 존재하는 곳이 나중에는 형벌의 장소인 불 호수가 있게 될 곳입니다. 이것은 모두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에서 이것과 다른 말씀을 하는 구절을 발견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제 의견을 바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게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요약

- (1) 성경에 의하면 세 개의 하늘과 땅이 존재합니다.
- (2) 성경에 의하면 북쪽에는 큰 유리 바다가 있고 그 위에는 산이 있고 그 위에 도시(새 예루살렘)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왕좌가 있습니다.
- (3) 창세기 1:1 이후로 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관점입니다.
- (4) 베드로후서 3장의 홍수와 노아의 홍수는 서로 다른 홍수입니다.
- (5) 성경에 의하면 아담 이전에, 인간이 아닌 거주민이 지구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 (6) 창세기 1:2은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가 아니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7) 성경은 우주와 하늘을 의복이나 휘장에 비유하고 있으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걷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8) 깊음 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불리는 큰 물의 한 쪽 편에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 쪽에는 불 호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록1 요약 및 정리

이 장은 제임스 닉스 형제의 “하늘나라와 지옥” 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정리한 것입니다.

1. 지하세계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게 되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전12:7, 3:21) 혼은 지옥이나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 땅 속의 지하세계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이, 너는 너의 평생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할 수 없고 거기서 오래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전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눅16:22-26)

성경에 의하면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과 지옥이 모두 땅 밑에 존재했습니다. 다만 둘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서로 오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2. 지옥(Hell)

1. 지옥의 존재와 필요성

이단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54회에 걸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은 다음의 이유로 필요합니다.

지옥은 범죄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 만든 장소입니다.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지옥은 죄를 지은 존재를 벌하고 죄를 지은 존재를 격리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신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1:29)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니”(행2:27, 31)

지옥은 죄인과 의인을 분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때에 왕이 자

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34, 41)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것을 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요5:40) “내가 주의 혼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시119:173)

2. 지옥의 위치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땅속,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마12:40)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을 때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며,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욥2:2,6)

성경에 의하면 산 채로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망이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이 산 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시55:15)

성경에 의하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녀의 집은 지옥

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잠7:27)

성경은 계속해서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지옥은 땅의 아랫부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내던질 때에 민족들로 하여금 그의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요동하게 하였은즉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최상급 가장 좋은 것 즉 물을 마시는 모든 것이 땅의 아랫부분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들도 그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그의 팔이 된 자들이요, 이교도들의 한 가운데서 그의 그늘 밑에 거하던 자들이라.”(겔31:16-17)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네 안에서 행한 능력있는 일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이 날까지 남아있었으리라.”(마 11:23)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벧후2:4)

3. 지옥의 본질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곳이며 어두운 곳이고 슬픈 곳입니다.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마8:12)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새 예루살렘이 아닌 바깥에 있는 곳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마22:13)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5:30)

성경에 의하면 지옥에서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 되기 전에 지옥도 불 호수로 던져져 그곳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 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칠혹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유13)

4. 지옥의 크기

성경에 의하면 지옥의 크기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갈 사람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지옥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사 5:14)

5. 지옥의 존속 기간

성경에 의하면 지옥에서의 고통은 불 호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계20:10)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성경은 지옥의 고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영원한 것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단12:2)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

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가 절뚝 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
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마18:8)

성경은 지옥의 고통과 하늘나라에서의 복과 생명이 모두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25:45)

성경은 지옥에 가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신 일
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
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거절한 사람
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별하시
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눈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1:8-9)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
라고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
리로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
를 받는 자는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계14:11)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9:48)

6. 지옥의 등급

성경에 따르면 지옥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정
죄를 받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
속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지옥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로다. 이는
네 안에서 행한 능력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이

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전디기 쉬우리라.”(마11:23-24)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요19:11)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거절한 사람은 결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히10:29)

7. 지옥의 거주민

성경에 따르면 지옥에는 마귀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불 호수에는 마귀와 거짓 대언자들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계20:10)

성경에 의하면 불 호수에는 사람들을 오류로 인도하던 거짓 대언자들과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를 섬기던 자들이 던져질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계19:20)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한 짓을 저지른 자들과 모든 범죄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경고하신 죄를 지은 모든 자들

은 모두 불 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21:8)

마귀나 사람은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혼을 죽이는 것은 불 호수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마귀나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마10:28)

8. 지옥의 종착점

성경에 따르면 지옥 자체도 불 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즉 지옥은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이며 불 호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다만 지옥 자체도 불 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에 지옥에서의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계19:20)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21:8)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는 결국 불 호수로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 자체도 불 호수에 던져집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

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지더라.”(계 20:12-14)

3. 하늘나라(Heaven)

1. 하늘나라의 위치

성경에 의하면 처음에 낙원은 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도 있더라.”(창2:8-9)

아담의 타락 이후 낙원은 지하 세계로 옮겨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23:42-4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후에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성경은 셋째 하늘로 옮겨진 후에는 낙원을 새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요20:17)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노니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 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고후12:2-4)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셋째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은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결국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 땅 위에 있던 낙원이 타락 이후에 지하로 옮겨졌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셋째 하늘로 옮겨졌는데 나중에 다시 새로운 땅 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계21:2)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온 후에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다가 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담이 거했던 낙원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 나무가 있어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계22:2)

2. 구원의 기간

하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에

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은 믿으면 나중에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느니라.”(요6:47)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따라서 믿는 자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므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5:11-13)

부록2 하나님의 구원 계획

GOD'S SIMPLE PLAN OF SALVATION

Dr. Ford Porter

저는 지금 당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지 슬픔을 맛볼지는 당신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선한지, 혹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7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그 계획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니”(롬6:23)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9:2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지고 대신 벌을 받게 하려고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예수님께서서는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레17:11)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히9:22)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롬5:8)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온전
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무관하게 저의 죄와 당신
의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졌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
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행17:30)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당신이 생각을 바꾸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30-31에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
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
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
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당신의 죄를 지고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분의 부활로 인해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확신을 갖
게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에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당장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13에서 죄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나 단체나 선행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 계획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구원자로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받고 그분의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것일 리가 없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단순한 것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만일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이 글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당신의 혼은 온 세상보다 귀중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막8:36)

반드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의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모든 걸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구원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

당신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매일 해야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세요.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당신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딤후1:8)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증거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인
요”(마10:32)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안내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32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36	9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8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32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3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92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4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6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2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커넥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군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군	64	-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6	13000
75	로마서강해	김 영 군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 DeHaan, M.D.	120	5000
79	욥기	Dr. Samuel C. Gipp	48	1000
80	사무엘 김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81	최고(Highest) 수준의 생활(生活)	Ruth Paxson	24	1000
82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456	16000
83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 종 욱	168	7000
84	영의 세계	LARKIN	160	7000
85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James W. Knox	40	1000
86	칭의에서 성화로	김 영 군	102	5000
87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전 종 욱	344	8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가량 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i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지은이
James W. Knox

제임스 낙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낙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ox.org>

옮긴이

이우진

- 펜사콜라성경신학원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 前 월간 강단의거성 편집장
- 前 펜사콜라성경신학원 강사
- 前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편집장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강사